

수불 스님(선원장)
어리석음서 벗어 나려면
형상 올바로 자각을
6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8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65호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사찰·본사·중앙 이어나갈 교구신도회 전국구성 '눈앞'

조계종 24개 교구 중 3곳만 남아… 연내 구성 추진

조계종 신도네트워크 전국화의 핵심사업인 교구신도회 창립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희망드림 대장정' 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업을 진행해 온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연내 전국에서 교구신도회를 구축하고 향후 SNS를 통한 운영 활성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최근 제3교구(교구장 우송, 신흥사 주지)가 10월 13일 속초 신흥사에서 교구신도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9월 16일 쌍계사에서 제13교구신도회 창립이 진행된데 이은 것으로 교구신도회가 창립되지 않은 제6교구 마곡사와 제12교구 해인사 또한 연내 신도회가 구성된다.

교구신도회는 지역의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교구본사 산하 말사들을 아우르는 신도조직이다. 본사뿐만 아니라 말사 신도조직을 총괄하는 대의기구로 지역현안을 공동의제로 삼아 활동한다.

그동안 조계종은 중앙신도회와 본말사 신도회는 있었지만 중간 연결고리인 교구신도회가 없어 지역 활동과 사회적 활동의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014년부터 '희망드림대장정' 사업으로 교구신도회 중심으로 신도조직을 구성해 왔다.

장성원 중앙신도회 행정지원팀장은 "교구신도회 창립 이후 중앙단위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 공익모금운동 행복바라미 사업의 경우 교구신도회 차원으로 활동을 전개한 3년차 사업이 1,2년차에 비해 60% 이상 모금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중신회' 드림대장정 사업 추진
1년간 조직 사업 마무리 단계
바라미 모금액 60% 증가 등
전국 신도 사업 활성화 '기대'

그렇다면 교구신도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교구신도회는 사찰신도회를 근간으로 하기에 사찰신도회 활성화가 결국 교구신도회 활성화로 직결된다.

민학기 제2교구 신도회장은 "신도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사찰신도회가 교구신도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한다. 스님들이 신도조직이 사찰과 불교발전의 동반자라는데 인식을 새롭게 하고 활성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신도회장은 "승가에서는 신도들이 응집하면 거부감마저 있을 수 있다. 적극적인 재가자의 경우에는 사찰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중도의 묘를 통해 출재가의 조직네트워크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신도회는 사찰신도회, 교구신도회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먼저 SNS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구신도회의 활동을 위한 의제설정부터 활동지원 등을 SNS를 통해 진행된다.

이어 중앙신도회는 11월 16~22일 각 교구본사에서 권역별간담회를 열고 교구신도회 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방향설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11월 27~29일에는 중국 청도 일대에서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연수를 열고 친목도 도모한다.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은 "전국 교구본사 순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청취해 향후 교구신도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지원시스템을 마련해갈 계획"이라며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불교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에 대한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베트남 불자와 함께 한 한가위 민족 명절인 추석, 이역만리 타향에서 온 외국인들은 가족을 그리며 쓸쓸히 명절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연휴기간동안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법석을 펼쳤다. 삼광사는 9월 26~29일 경내 지관전에서 '다함께 하나되는 한가위 베트남법회' 를 봉행했다. '마음 넓히기' 라는 주제로 열린 법회에는 베트남불교 부위원장 틱광누언 스님, 선교위원 틱티엔투안 스님, 성의불교 총무이사 바리아 붕따우 스님을 비롯한 베트남스님과 베트남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 후 마당에서는 베트남 스님들의 탁발행렬이 이어졌으며, 재가불자들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베트남불자들이 출가를 체험하는 삭발의식과 다양한 법회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사진제공= 부산 천태종 삼광사**

"만공 스님 항일정신 평가하는 공개토론 열자"

경허만공선양회, 10월 1일 국가보훈처에 공문 보내

"일제의 골통을 일할로 깨부수고 불언지언(言之言)으로 창씨개명을 끝내 거부한 만공선사의 고차원적인 항일독립운동 행적은 분명한 형적(形迹)으로 오늘에 재조명해 공적을 널리 선양해야 합니다."

만공 스님〈사진〉의 국가유공자 서훈을 추진하고 있는 경허만공선양회(회장 옹산)가 10월 1일 국가보훈처에 학술자료 송부와 함께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허만공선양회 회장 옹산 스님은 10월 1일 "지난 9월 22일 학술대회 후 국가보훈처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만공 스님의 독립운동 업적이 투옥 및 복역 기록이 없어 평가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장투쟁뿐 아니라 간디보다 앞서 비폭력 투쟁을 실천했던 만공의 독립운동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양회 측은 이날 공문을 통해 △조선총독 앞에서의 항변 △만해 스님에게 독립운동자금 전달 △의왕



과 손병희와 만공 스님의 3·1운동 이면의 관계 △31본산 주지 중 유일하게 창씨개명 거부 △구국을 위한 간월암 천일기도 △한국불교 정체성 수호위한 선학원 설립 주도 등을 보훈처에 주장했다.

옹산 스님은 공문발송에 대해 보훈처에 "사상적 행위에 대한 내용도 독립운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항일정신 평가의 검증을 위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서훈 심사는 현재 1차 심사가 완료된 상태로 10월말 2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서훈은 11월 17일 순국선열의날 발표된다. 경허만공선양회는 5월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이탈리아에 한국사찰음식 매력 전한다

문화사업단, 10월 14~18일 밀라노엑스포 참가

인류의 식량 문제를 주제로 5년마다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를 알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10월 31일까지 열리는 2015 밀라노 엑스포에 참가해 대표적인 한국 전통 음식문화이자 자연친화적인 사찰음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한다.

이번 밀라노 엑스포의 주제는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관 부스를 설치해 '한식, 미래를 향한 제안 : 음식이 곧 생명이다' 를 주제로 한국전통음식을 소개한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관 행사의 일부로 참가한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자연과 시간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 '사찰음식' △자연과의 조화로운 식사가 건강의 비결 △소식, 채식, 나눔과 배려의 식습관 등 사찰음식의 장점을 외국인들에게 부각시킬 예정이다.

사찰음식 홍보는 △전시(음식, 식재료, 닥종이 인형, 상시운영) △강연(사찰음식 소개 및 전통 장문화 소개) 및 시연(30~50여명 대상, 1일 2회) △템플스테이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연꽃등 만들기, 인경탁본, 단청그리기) △포토존 운영(즉석사진 촬영 및 사찰음식 액자제공) △영상 상영(사찰음식, 템플스테이 소개) △만찬(이탈리아 미식과 학대학 교수 및 학생 80여명) 등으로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외반출 문화재 감정제도 시행된다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서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 를 10월 1일부터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 17개소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국외밀반출을 막기 위해 국제공항과 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출국 바로 직전에 여행객들이 해당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반출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문화재 감정을 실시해 반출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 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사전예약감정을 받으려면 출국 3일 전까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 누리집 첫 화면 중앙 하단의 '주요 서비스' 메뉴에서 '사전예약감정' 을 선택한 후 물품명, 사진 등 감정에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사전감정 결과는 출국 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실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비문화재확인서' 를 받고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국외반출 불가능 문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수 없다. 적발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제출된 사진만으로 문화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재감정을 받아야 한다. **신성민 기자**



“신촌 봉원사 재산 관리는 조계종 권한”

대법원, 태고종 패소 원심 확정

대표적 조·태 분규 사찰인 서울 신촌 봉원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은 조계종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기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한 것을 말소해달라며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조계종봉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불교계는 1954년부터 종단 주도권 등을 놓고 비구와 대처가 대립하다 정부 조정으로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통합종단을 구성했다.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한 1962년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됐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은 이에 반발해 1970년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때부터 봉원사는 명의가 조계종이면서 태고종에서 계속 점유·관리했다. 포교도 태고종 임명 주지들이 했다. 조계종은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주지 14명을 임명했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는 못했다.

태고종은 조계종이 2010년 6월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자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1심은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을 마친 이후 조계종 소속 사찰로 관할 관청에 등록됐다”며 “조계종에 봉원사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2심도 태고종의 봉원사 점유를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해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신성민 기자

진흥원 “불교방송 지원 아끼지 않겠다”

김규칠 이사장, 30일 선상신 사장 시무식서 강조



BBS불교방송은 9월 30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칠 이사장을 비롯한 불교방송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선상신 신임 사장에 대한 시무식을 가졌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새로운 사장을 맞은 BBS불교방송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9월 30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칠 이사장을 비롯한 불교방송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선상신 신임 사장에 대한 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 자리였지만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함께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규칠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처님의 고귀한 말씀을 박물관에 박제된 채로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BBS불교방송이 나눔의 기쁨과 향기로운 방송이 되기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방송 이사회의 역할을 통한 불교방송의 재정 확보와 사옥 건립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 해왔다”면서 “선상신 신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올해는 특별 예산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선상신 BBS불교방송 신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방송 개국의 의미와 역사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은 대한불교진흥원과 함께 불교방송의 부모와도 같은 존재”라면서 “앞으로 개국 정신에 따라 진흥원과 종단을 잘 모시고 방송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BBS불교방송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동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총무원장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9대 선상신 사장 취임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비구니회장 후보, 자민·육문 스님 등록

자민 스님 기호 1번 · 육문 스님 기호 2번 배정

전국비구니회 11대 회장 후보 선출이 양강구도의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게 됐다.

10월 1일 현재 전국비구니회에 접수된 후보는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자민 스님(천안 연대선원)과 육문 스님(군위 법주사 주지)이다.

후보 마감일은 10월 2일이며 오는 10월 12일 오후 1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열린다.

자민 스님이 가장 먼저 후보 접수를 완료했다. 자민 스님은 9월 30일 오후 접수를 완료해, 기호 1번을 배정받았으며, 육문 스님은 10월 1일 오전 접수해 자동적으로 기호 2번을 받았다.

차기 비구니회장 후보로 지속적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자민 스님은 현재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본지가 마감 직전까지 자민 스님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별도의 선거대책본부도 없고, 제자들이 선거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사항도 선거 당일 대중 스님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열린비구니모임 측이 추대한 육문 스님의 행보는 매우 적극적이다. 9월 16일 군위 법주사에서 추대식을 열고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10월 1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난 후에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육문 스님 “비구니회 변화”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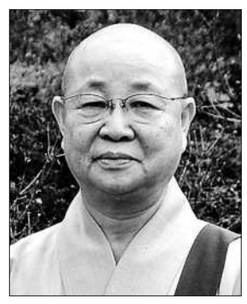
육문 스님이 제시한 공약은 △일하는 전국비구니회 △비구니 승단의 위상과 권익 향상 △비구니 스님의 노후복지 증진 △비구니승가 인재 육성에 기여 △청정한 수행자의 자세로 승가 화합 등의 5대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후보 접수 마감일 앞두고
유력 후보 2인 모두 등록
12일 총회서 선거로 선출

주요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변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구니회의 회칙 개정이다. 이에 대해 육문 스님 선거대책본부는 “임의적이고 애매한 회칙 조항을 명쾌하게 개정해 운영위원 구성이나 종회의원 선출과 자격요건 등 조직 구성과 운영 전반에 합리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 조직 개편을 비롯해 대중 여론을 반영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비구니회 재정 증대, 비구니회관 효율적 활용 방안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전국비구니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비구니회 임의단체 지위 탈피 △비구니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법령 개정 △비구니 역량 발휘 지원 △비구니 원로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기호1번 자민 스님은 1939년 10월 부산 출생으로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1954년 사미니계를, 1962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7, 8, 9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천안 연대선원에 주석 중이다.



기호2번 육문 스님은 1946년 충남 서산 출생으로 1962년 사미니계를 1973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1대 중앙종회의원과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백흥암 회주와 군위 법주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육문 스님 선거대책본부는 “현재 전국비구니회는 임의 단체이다. 종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법적 기구이자 종단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전국비구니회 산하에 공식기구로 원로위원회를 구성해 비구니 승단 발전의 지침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구니 스님이 노후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권역별 비구니 노후 수행도량 설치 △지회별 전담 의료기관 지정 △비구니 스님을 위한 다비장 건립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비구니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인재 DB 구축 △교육연수프로그램 강화 △사회성 강화 교육 시행 등을 내놨다.

이와 함께 육문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에 임하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육문 스님은 “지난 1년 간 열린비구니모임의 노고는 이루 다할 수 없이 컸다”면서 “앞으로 열린비구니모임과 함께 끝까지 비구니의 발전과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열린비구니모임은 오래전부터 화합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면서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육문 스님 선거대책본부 사무총괄위원 혜조 스님은 “아직 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식 제안을 받지도 한 적도 없다”면서 “실무진은 모르겠지만 후보 간 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육문 스님 선거대책본부는 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을 요청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앙신도회, ‘SNS 활용 포교’ 나선다

9월 19~20일 행복바라미 워크숍서 관련 부서 발족

1000명까지 통신원 확대
전국 불자들 민원 접수도
전법회관 1층 카페 활용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이 SNS를 통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포교에 나선다.

중앙신도회는 9월19~20일 대전 K-WATER 교육원에서 ‘2015 행복바라미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앙신도회 SNS 조직운영팀’을 발족했다. 중앙신도회 SNS팀의 총괄팀장은 윤재우 중앙신도회 대변인이 맡기로 했으며, 행복바라미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통신원으로 참여한다. 다음카카오그룹과 네이버 밴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신회 홈페이지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활동을 공유한다.

중앙신도회 SNS팀은 SNS를 활용해 포교와 전법, 호법, 교육 등 불교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펼치며, 전국 불자들의 민원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위기에 놓인 불자가정에 대한 상담과 청소년 지도 등 사회적 역할 수행도 참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법률·노동·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팀장들을 현장에 파견해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중앙신도회는 향후 중앙신도회 SNS팀 통신원을 1000명까지 확대해 전국의 신도조직을 SNS 그물망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신회SNS팀은 SNS를 활용해 계획이다. 특히 전국 불자들의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받아 해결책 또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 불자 기업 및 교계 사회적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 연계 등 신도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신도회는 종로 전법회관 1층에 바라미 카페를 열고 오프라인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바라미 카페는 SNS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연동하며 △불자 커뮤니티 공간 제공 △소규모 전시·공연·교육을 위한 공간 대여 △교육 및 전문상담을 위한 공간 지원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세계불교포럼 24일 中 무석서

분과토론 · TV논단 등 진행

전 세계 불교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사회를 이끌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는 세계불교포럼이 10월 24, 25일 양일간 중국 무석서 열린다. 제 4차인 이번 세계불교포럼은 ‘함께 원력으로 동참하며, 서로 교류하여 거울삼자(同願同行 交流互鑒)’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3년마다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지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불교포럼은 개막식에 이어 △대회발언 △전체승단 발우공양 △기념촬영 △분과토론·TV논단·인터넷논단 △만찬 △주제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대표단의 발제는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 박창환 금강대 교수 등 5명이 맡는다.

김주일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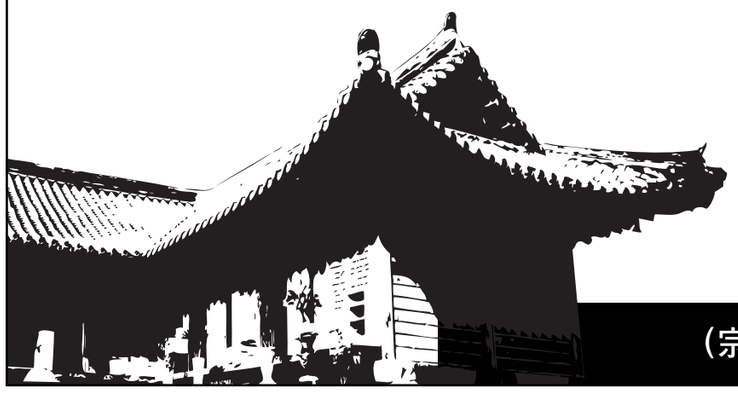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 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쌍용차 회장 해고자 복직하라”

조계종 노동위, 성명 발표

쌍용차 노조지부장 단식농성이 32일째(10월 1일 기준) 접어든 가운데, 조계종이 쌍용차 임원진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득중 쌍용차 노동조합 지부장은 해고자복직 및 노사협상타결을 요구하며 32일째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서 단식중이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노동위)는 10월 1일 성명서를 통해 “7년째 복직을 위해 길거리에서 싸우며 그 사이 28명의 동료들을 떠나보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기한 없는’ 복직 약속은 제안해선 안 될 가혹한 일”이라며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위는 “쌍용차 대주주 인도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신차들의 선전으로 흑자를 거둘 경우 필요에 따라 인원을 충원할 것이며, 2009년 해고 노동자들을 우선 충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이후 티볼리 개발로 경영이 호전되며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인력 필요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복직에 여전히 미온 · 부정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아름 기자**

1만원 템플스테이 전국 79곳 사찰서 개최

사업단 10월 19일~11월 1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스님)이 올 가을 1박 2일 일정의 템플스테이를 1만원에 체험할 수 있는 ‘행복만원(幸福滿願)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실시한 ‘관광 주간’ 기간에 동참하며 템플스테이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봄에 이어 네 번째다.

기존의 행복만원 템플스테이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내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을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각지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75곳에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10월 5일 오전 11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공식 홈페이지(fall.templestay.com)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선착순 총 1만 명에게 당일 템플스테이는 5천원,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1만원에 제공된다. **신성민 기자**

군포교 인프라 구축… 10만 수계장병 시대 도래

조계종 군종교구 출범 10주년 ‘성과와 과제’



2012년 5월 2일 열린 호국연무사 낙성식. 연면적 5281㎡에 최대 5000명 수용 가능한 대작불사였다.

2005년 9월 28일은 한국불교 군포교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바로 조계종에서 최초로 군종특별교구를 출범시킨 것이었다. 군 포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기존 군불교위원회를 교구로 승격한 것이 바로 군종교구의 탄생이었다. 불교계의 많은 관심 속에 탄생한 군종교구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군종교구가 이룬 성과는 매우 많다. 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군포교 인식 개선 성과

조계종 군종교구 출범 후 10년 동안의 시간은 군포교의 중요성을 불교계에 알렸다는 의미가 크다. 독립적인 행정체계를 통해 그동안 많은 사업을 진행해왔다. 초대 군종교구장에 동국대 이사장인 일면 스님이 맡아 초석을 닦았으며, 2009년부터는 용인 반야선원 회주 자광 스님이 2대 교구장으로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법당을 신축하는 성과를 남겼다. 현재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3대 군종교구장을 맡고 있다.

군종교구는 출범 이후 특히 장병 수계에서 혁혁한 성과를 냈다. 최근 7년간 수계인원을 보면 2008년 8만 7,700여명에서 2009년 9만 1,100여명, 2010년 10만 2,800여명, 2011년 10만 3,500여명, 2012년 11만 4,530여명, 2013년 10만 5,000여명, 2014년 11만 6,500여명 등으로 꾸준히 그 수가 늘어왔다. 이는 군종교구가 중심에서 수계법회를 여는 한편 일선 사찰의 참여를 독려한 바 크다.

군포교 전진기지인 군법당 건립에도 힘써 2012년에는 군종교구가 중심이 되어 숙원사업이었던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도 성료하였으며, 398곳 법당 중 노후화된 법당의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또 계층별 불자관리에서 교육단계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 2014년 불자생도들이 10%가량 늘어나는 한편, 불자사관생도 유발상좌제도에 2015년 상반기에만 12명이 지원했다. 전군 간부불자 통합관리 시스템 또한 구축한 것이 성과로 현재 116곳의 법당 4500여 간부불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군 최초로 여성 군종장교로 비구니 스님이 파송되는 등 여러 성과를 냈다. 군승 독신 조항 도입 이후 승려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종단 내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호국연무사 불사 및 후원 확충
민간성직자 지원 및 관리 과제
“청년 불자 양성 기회 살려야”


2015년 1월 2일 열린 새해 첫 수계법회

전역 장병 관리 등 숙제

하지만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들도 많다. 먼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로 군포교가 고착화 되며 타종단의 군승 진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출범 초기부터의 난항이 최근에는 갈등까지 빚고 있다. 천태종이나 태고종, 진각종 등 다른 많은 종단이 군포교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면 스님


자광 스님


정우 스님

개신교계에 비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확충과 함께 민간 성직자 지원 문제도 관건이다.

오랫동안 군포교에 힘쓰고 있는 삼보회 박호석 법사는 “군승 법사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군법당이 아직도 많다. 포교사들이 이런 군법당을 관리하고 있지만 포교사에 대한 종단이나 교구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군법당을 지원하는 형태다 보니 포교사들도 쉽게 지치고, 군포교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대 전 파라미타 청년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에서 신도자료를 받아 군생활시 수계불자관리, 전역 후 지역 민간 사찰로 인계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군종교구 관계자는 “현재 조계종 포교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수계장병들이 군생활에서 세운 원력을 제대 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노인의 날 맞아 불교계 수훈 잇따라

연꽃마을 故각현 스님, 국민훈장 목련장 추서
길음복지관도 대통령 표창



제19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온 불교계 인사 및 단체들이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입적한 연꽃마을 각현 스님<사진>이 제19회 노인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에 추서됐다.

정부는 10월 1일 오후 2시 경기도문화의전당서 개최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각현 스님을 비롯해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우대 정착에 이바지한 인사 3명에게 국민훈장을 수훈했다. 각현 스님을 대신해 현 연꽃마을 대표이사 원명 스님이 대리 수여받았다.

각현 스님은 1990년 8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5년 간 약 70여개 시설을 운영하며 ‘노인복지활동가’로서 매진해 왔다. 이밖에도 경기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 경기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경기복지미래재단 초대 대표이사, 전국노인단체연합회 부회장 등 역임한 바 있다.

아울러 (사)길음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성운, 관장 장제원)도 10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길음복지관은 노인들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 환원활동 지원, 지역맞춤형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 등 노인복지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2년부터 실시한 노인일자리사업 ‘아파트택배사업-길음실버메신저’는 노인복지 및 마을경제 발전을 위한 결합모델로 시행됐다. CJ택배 · 한진택배와 연계해 길음동 지역 임대아파트 거주 또는 하우스푸어 어르신들에게 택배 일자리를 나누고, 활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왔다. 또한 길음친환경 먹거리사업단 ‘실버그린이(Silver Greeny)’ 사업은 노인들이 직접 친환경 먹거리 제조 및 판매를 실시해 지역주민 건강 유지와 함께 도농상생경제를 도모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민추본, 북중접경 역사문화순례 ‘성료’

9월 19일~22일 3기 불교지도자과정 40여명 참석

민족공동체추진본부 3기 불교지도자과정이 북중접경지역 역사문화순례를 끝으로 회향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9월 19일~22일 3기 불교지도자과정 일환으로 ‘북중접경지역 역사문화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일정에는 사무총장 진효 스님을 비롯해 약 40명이 참여했다.

순례단은 첫날 여순감옥 및 안중근 의사 추모관을 방문해 독립선열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3박 4일간 △2일차– 일보과, 호산장성(박장성), 압록강 단교 △3일차– 백두산 천지, 금강대협곡 △연변박물관 등 일정을 순회했다.

민추본 측은 “순례를 통해 막연하게 여겼던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여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9월 19일~22일 3기 불교지도자과정 일환으로 ‘북중접경지역 역사문화순례’를 개최했다.

6천 여 비구니스님의 위상과 권익향상
육문스님과 함께 이루어갑시다



전국비구니회는 6천 여 비구니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제방의 비구니스님들을 위해 일하는 승가의 구심점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후보 기호2 육문

육문스님 선거대책위 명단
■ 증명 명성스님 경순스님 법운스님 경희스님 대인스님 묘관스님 정륜스님 경심스님 재희스님 자광스님 보각스님 적조스님 ■ 고문 일법스님 운달스님 지문스님 법홍스님 지우스님 성우스님 정수스님 묘정스님 순행스님 정성스님 만오스님 남석스님 대련스님 상영스님 상훈스님 ■ 후보추대위원 위원 견성스님 경륜스님 경헌스님 능인스님 대성스님 대우스님 대원스님 도선스님 동숙스님 동찬스님 동호스님 명수스님 명순스님 명전스님 명호스님 묘순스님 문수스님 법륜스님 법안스님 법여스님 법일스님 본각스님 상명스님 상화스님 석민스님 선경스님 선관스님 선종스님 성련스님 성범스님 성열스님 성욱스님 성주스님 성현스님 수현스님 수환스님 영안스님 영운스님 의성스님 이혜원스님 인성스님 일권스님 일륜스님 일연스님 일장스님 일진스님 임대스님 자현스님 재호스님 적인스님 정명스님 정묘스님 정묵스님 정엽스님 정우스님 정운스님1 정현스님 종선스님 중안스님 지형스님 지효스님1 탁연스님 탄형스님 해관스님 해만스님 해성스님 해주스님 행돈스님 행법스님 행오스님 현각스님 혜도스님 혜선스님 혜욱스님 혜운스님1 혜운스님2 혜원스님 혜일스님 혜천스님 혜향스님 화정스님 효경스님 희원스님 (가나다순) 실무위원 경조스님 고심스님 광현스님 금주스님 기원스님 대현스님 도현스님 명연스님 보경스님 소현스님 심원스님 연광스님 우송스님 유곡스님 일법스님 일양스님 일중스님 일지스님 자명스님 재범스님 정관스님1 정관스님2 정운스님2 주석스님 지명스님1 지명스님2 지효스님2 진광스님 진명스님 진아스님 철우스님 행관스님 현빈스님 형운스님 혜조스님 (가나다순) ■ 선거대책본부장 임대스님(대표 및 비대위원장) ■ 지역선거대책위 수석위원장 법륜스님 ■ 사무총괄위원장 진명스님 기획팀 혜조스님 조직팀 재범스님 재무팀 일법스님 홍보팀 진명스님 총무팀 대현스님 법무대외협력팀 행관스님

일 주 문



현성 스님,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현성 서울 도선사 조실 스님은 10월 3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3000여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진행했다.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도법 남원 실상사 회주 스님은 10월 15일 오후 7시 산내초등학교 대강당서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를 개최한다.



봉은사 행복나눔 바자회

원학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10월 13일~15일 정토마을 요양병원 및 달마학교 지역아동센터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



파라미타 등 작품 공모전

정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스님은 10월 16일까지 '등작품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다.



한·중·대만 불교교류 산사음악회

혜일 제주 서귀포 정방사 주지 스님은 10월 11일 오후 5시 정방사 특설무대서 '한 · 중 · 대만 불교교류의 장' 산사음악회를 연다. (064)762-2775



서산 일락사 산신제

경학 서산 일락사 주지 스님은 10월 17일 대동한마당을 시작으로 7일간 산신제를 봉행한다.



영평사 산사음악회

환성 세종 영평사 주지 스님은 10월 3일~11일 산사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불교공뉴스 5주년 108명예기자 모집

혜철 불교공뉴스 대표 스님은 10월 1일 창간 5주년을 맞아 명예기자를 모집한다.



추계 철야정진법회

청봉 전근홍 산청 보림선원장은 10월 16일~18일 백봉 김기추 거사의 새말귀 CD법문 및 녹취집을 교재로 참선 수행하는 추계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한다.

〈인사〉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10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인사를 단행했다.

△강동훈 경영기획국장 겸 포교문화국장 △박관우 보도국장 △최윤희 편성제작국장 △권병훈 기술영상국장 △박시하 전법후원국장 △박상필 편성제작국 제작위원

"사찰음식, 종교 음식의 교과서"

종교음식전문가이자 사찰음식점 '마지' 김현진 대표



도제교육 효과… 철학부터 마케팅까지
3.1운동 캠페인… 신체 밸런스 도움
한식 세계화, 종교 음식으로 풀어야

도제 교육은 상업, 공업, 기술 등 한 분야서 뛰어난 장인(匠人)의 집에 다니면서 도제가 되어 봉사하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직업 교육 현장서 다뤄지는데 매우 엄격한 훈련을 장기간에 걸쳐 한다. 힐링 열풍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관심과 인기가 높은 '사찰음식'을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음식 포교에 나선이가 있다. 사찰음식점 '마지'의 김현진 대표이다.

'마지'는 사찰음식처럼 모든 종교의 거스름이 없는 언어로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영단, 약초', 아프리카에서는 '생명수', 기독교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마지운동'으로 일본에서는 '진실한' 불교에서는 '붓다에게 올리는 공양' 등의 의미를 지닌다.

"사찰 음식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렬한 미각을 돋워 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맛을 기억하기 힘든 점이 있지요. 그래서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이나 그 음식들이 우리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제식 교육은 단순히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 사찰음식에 대한 의미와 불교적 사상은 물론 경영비지니스, 마케팅 실전 노하우까지 차근차근 공유하면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 사장은 불교의 사찰음식 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에선 생소한 종교음식 전문가이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일찍이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자이나교 등 종교 음식 전반에 대해 공부하는 푸드스터디(Foodstudy)가 인기다.

"음식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맛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돼요. 음식들에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 다양한 분야가 녹아 있지요. 종교 음식 전문가 영역은 한국서 블루오션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큰 발전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할랄(Halal) 음식이나 유대교의 코셔(Kosher) 음식을 먹는 이들이 한국에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의 인증법도 제대로 몰라요."

김 대표가 처음부터 종교 음식에 관심 깊었던 것은 아니다. 10년간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다가 2007년 우연히 사찰음식 공부를 시작했다. 사찰음식 전문가인 어머니의 영향도 컸다. 출발은 사찰음식이었지만 점점 범위를 넓혀 다양한 종교음식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배울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음식 조리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각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실된 종교 음식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런 고민을 통해 오신채 없는 사찰음식점 마지가 탄생한 것이다.

"사찰음식이 채식이다 보니 그것을 익히면 다른 종교음식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기본기가 갖춰지더군요. 딱 맞아 떨어지기보다는 모든 종교의 거스름이 없는 음식이 사찰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는 사찰음식점이지만 실제로 불자 고객은 10퍼센트 정도고, 주로 이슬람교, 유대교, 자이나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 관계자들이 더 많다. 한국인들에게는 아직도 낯선 사찰음식점이다.

"시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마지의 고객들이 채식주의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채식주의자는 20프로도 안돼요. 채식 하는 분들은 번거러워서 오히려 외식을 잘 안해요. 또 불자분들도 사찰음식을 자주 접하다보니 사찰음식점에 안옵니다. 이 때문에 마지는 채식주의자, 불자 고객을 넘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삼일운동 캠페인을 펼칩니다. 평상시 고기를 섭취하고 1주일에 3일, 1주일에 세 끼, 세 번 외식 중 한 번만 오신채를 넣지 않은 마지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분명 몸에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이어 김 대표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각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식의 세계화는 일방적으로 주입식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한식을 소개해야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팔공총림도 '붓다로살자' 동참

동화사 대구경북 최초 실천도량 선포식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추진하는 '붓다로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에 팔공총림 동화사가 대구 · 경북지역 최초로 동참했다. 대구 동화사(주지 덕문)는 10월 1일 전국 14번째이자 대구경북 최초로 '붓다로 살자' 실천 도량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계종 자성과쇄신추진본부 본부장 도법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500여 대중이 함께했다.

도법 스님은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의 '붓다로 살자' 친필 휘호를 동화사 주지 덕문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날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우리 모두가 '붓다로 살자' 실천을 통해 참다운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덕암 주지 혜경스님이 동화복지재단에 복지기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사부대중들은 다함께 '붓다로 살자'의 세가지 실천청규를 낭독했다.



대중들에게 손창수 동화사 신도회장은 "참선수행을 생활화 하자"며 "특히 부드러운말 고운말을 사용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총동림동문회, 2015년 워크샵 성료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회장 무문)는 10월 1일 경북 문경 혜국사에서 2015년 국내 학술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회장 무문 스님, 명예회장 학명 스님, 사무총장 지담 스님 등 1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삼척 도덕정사, 추석맞아 자비나눔



삼척 도덕정사(주지 미광)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탄광촌 어르신들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도덕정사는 9월 23일 삼척 도계지역 소외어르신 18가구를 방문해 햅쌀과 불고기 등을 선물하고 겨울나기용 연탄을 전달했다. 도덕정사는 매달 지역사회 소외어르신들을 찾아 연탄과 쌀을 나누는 '연밥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나눔행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덕정사 스님들과 신도뿐 아니라 경동상덕광업소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주지 미관 스님은 "이웃이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제자라면 먼저 주변을 살피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옥천불교사암聯, 영규대사 추모제향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9월 30일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기허당 영규대사(~1592년)와 중봉 조헌(1544~1592년) 선생에 대한 추모제를 옥천 가산사에서 진행했다.

가산사 영정각(충청북도기념물 제115호)에는 영규대사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승려들에게 학문과 무술을 연마시켰다는 기록과 함께 대사와 조헌 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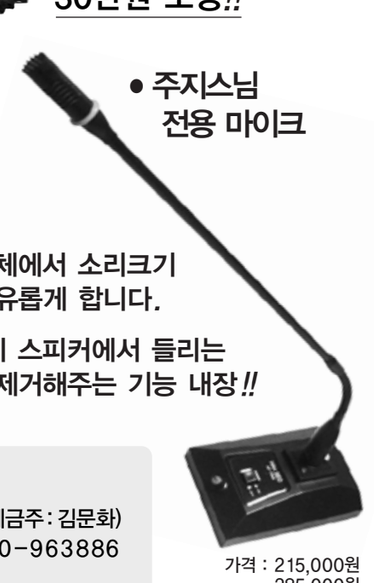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가을 山門 열리니 지금 전국은 화장세계



지난해 열린 서울 조계사의 국화 향기 나눔전의 모습. 조계사의 국화 향기 나눔전은 사찰 국화축제의 효시로 지역민과 인근 회사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동화사의 승시 축제. 스님들의 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지역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봉은사의 지난해 사찰음식 도시락 경연대회 모습. 올해에는 개산대재 행사로 함께 진행된다.

전국 주요 사찰 개산대재 · 가을 축제 '다채'

10월은 전국은 지역 축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시기다. 불교에 있어서도 10월은 명산고찰이 개산(開山, 사찰을 처음 건립된 날)을 맞아 '개산대재' 를 잇달아 여는 의미있는 달이다. 가을 맞아 열리는 다양한 개산대재와 축제 일정을 정리해봤다. **정리=신성민 기자**

스님들의 장터, 만나보세요

팔공총림 동화사 승시 축제(10.1~31)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덕문)의 승시 축제는 스님들의 산중장터를 현대적인 지역문화관광콘텐츠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문화축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올해 동화사의 승시 축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열린다. 축제 기간인 10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국화 축제도 함께 열린다.

승시 축제의 시작은 10월 7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전야제가 알린다. 이날 전야제에서는 대한불자가수회 대구경북지회 창립기념 공연이 진행된다. 승시 축제의 공식적인 개막은 8일 오후 5시부터. 연꽃춤 식전행사와 승시 축제 개막식이 이어진다. 개막법요식은 고려초조대장경 봉안식이 함께 봉행된다. 개막식이 끝나면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달굴 예정이다.

9일은 승시와 전통문화의 나눔을 주제로 사진촬영 경연대회, '일자일불(一字一佛)' 사경대회, 대구경북 초등학생 씨름대회, 예불과 승무 시연, '통통(통通) 한마당' 등 행사가 열린다.

10일은 스님들과 시민들의 소통의 날이다. 사찰음식경연대회, 나도 장금이, 승가 씨름대회, 예불 및 승무시연, 울려라 법고소리(전국 학인 법고대회) 등이 이어진다.

11일은 '승시와 대중 화합, 그리고' 주제의 날이다. 승시 노래자랑, 우리가 락(樂) 음악회 등이 진행된다.

동화사는 "스님들의 시장인 승시는 독특한 역사적 소재이지만 사찰 전통문화 체험 등을 더해 지역 문화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면서 "승시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재인식 시키고,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역대 조사의 정신을 기리며…

제10교구본사 은해사 개산대재(10.24)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는 개산조인 혜철 국사와 역대 조사를 기리는 개산대재를 10월 24일 개최한다.

올해로 개산 1206주년을 맞는 은해사의 개산대재는 개산조인 혜철 국사와 역대조사 부도전에 참배후 조사전에서 다례재를 시작으로 지역 기관장 및 많은 불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요식을 진행한다.

법요식에서 주지 돈관 스님은 개산대재 봉행의 의미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국악인들과 종립학교인 선화여고생들의 댄스 등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과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등 큰 스님이 증명하는 보살계 및 수계식이 열린다.

수계식후 지역민들의 화합을 기원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중악 은빛음악회' 가 열린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금잔디, 현숙, 김국환 등 유명가수들이 은해사의 개산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사찰음식 · 사생대회 등 행사 눈길

서울 강남 봉은사 개산대재 (10.4~31)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학)가 개산 1221주년을 맞아 여는 축제는 다양한 기념 사업과 문화 행사로 채워진다.

'천년의 전통 다시여는 천년' 을 주제로 10월 한 달간 열리는 봉은사의 개산대재 행사는 시작은 10월 4일부터 시작된 국화축제가 알린다. 경내에 수놓은 국화는 국내외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봉은사 그림그리기 대회, 사찰음식 도시락 경연대회, 템플 문화한마당, 전통차 시연회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역대 조사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역대 조사 다례재' 는 오는 10월 13일 오전11시 대웅전 앞에서 봉행된다. 창건주 연회 국사를 비롯해 보우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기율사, 영암대종사, 석주대종사 등 7명의 진영을 모시고 헌다와 헌화, 권공의식 등을 통해 조사들을 기린다. 15일에는 판전(版殿)에 봉안된 화엄경판 인경본을 정대(頂戴)한 뒤 도량과 법계도를 도는 '정대불사'도 봉행한다.

자비나눔 행사도 펼쳐진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종루 옆 잔디밭에서는 개산대재를 기념하는 음악회와 함께 '행복나눔 대바자회' 를 개최한다. 바자회 수익금은 호스피스 정토마을 요양병원 환자들과 지역아동센터 달마학교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봉은사는 "개산대재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고 새로운 천년의 기틀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찰 국화축제의 원조 '명불허전'

서울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10.14~11.14)

서울 조계사가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국화향기 나눔전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 는 사찰 국화축제의 효시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 사찰에서 가을 국화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시인들에게는 매우 색다른 체험으로 다가온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화향기 나눔전은 오는 10월 14일 개막해 11월 14일까지 한달 여 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불자와 지역주민을 맞는다. 이번 도량장엄은 '금강경' 을 주제로 오채현 조각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조계사의 국화 향기나눔전은 생전예수재를 시작으로 교리경진대회(10월 17일), 국화 영산재(10월 21일), 어린이 미술대회(10월 25일)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지역민과 인근 회사원을 위해 11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점심시간 '소리나눔 콘서트' 를 개최하며, 10월 23일 저녁에는 '꽃이 되어요 음악회' 로 도시의 '불금' 을 장식한다.

또한 조계가 일자리나눔터 채용박람회를 비롯해 바자회, 문화강좌 전시회 등이 함께 진행된다.

이밖에도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9~18일 오대산 일원에서 '오대, 세상을 품다' 를 주제로 제12회 오대산 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올해에는 그간 월정사에만 국한됐던 무대를 오대산 전역으로 확대해 오대산과 오대산의 각 암자가 가진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전시와 공연 등을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전남 구례군 화엄사(주지 영관)에서는 올해로 10회를 맞은 화엄음악제가 10월 10일 열린다. '심금(心琴)' 을 주제로 한 올해 음악제는 공연시간을 오후 6시로 옮겨 가을밤 지리산의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무대로 준비된다.

보컬리스트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이바 비토바를 중심으로 한 트리오 '에비안(Eviyan)' , 판소리와 피아노가 만나는 '한승석&정재일' , 레바논 출신의 종합 예술인 디마 엘사예드, 일본의 타악 연주자 타카다 미도리 등 국내외 뮤지션들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어리석음서 벗어 나려면 형상 올바로 자각을”

국제선센터 간화선 법회

선원장 수불 스님

완릉록(宛陵錄)은 당의 배휴(裵休)가 848년에 안휘성(安徽省) 완릉(宛陵)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황벽 희운(黃檗希運)을 능양산 개원사에 모시고 조석으로 그의 가르침을 받아 그 것을 기록한 법어집이다. 수불 스님은 9월 5일 서울 동국대 국제선센터 〈완릉록〉 강좌서 완릉록 제10장 ‘마음밖에 다른 부처가 없다’ 를 해설했다. 수불 스님은 “형상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다 허망한 줄 알면, 허망하지 않는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어야 한다”며 “형상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의미의 깨우침이 어리석음과 허망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강조했다. 정리=이계섭 수습기자



수불 스님은 … 지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사미계를, 1977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범어사 승가대학 졸업 후, 1979~1989년 노스님 시봉 및 제방선원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前 안국불교대학 이사장, 제43대 불교신문 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안국선원장,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부산시불교연합회장, 부산불교방송 사장 등 맡고 있다. 저서로는 〈황금빛 봉황이〉 등 있다.

마음밖에 다른 부처 없어

〈완릉록(宛陵錄)〉 제10장 ‘마음밖에 다른 부처가 없다’ 를 한 구절씩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망념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네가 지금 망념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 가운데 망념이 없다면, 부처 또한 없느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네가 마음을 일으켜 부처의 견해를 지어서 문득 이룰만한 부처가 있다고 하며, 중생의 견해를 지어서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모조리 너의 견해가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일체의 견해가 없다면 부처는 어느 곳에 있겠느냐? 마치 문수가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두 철위산 지옥에 떨어진 경우와 같은 것이다”

부처가 어느 곳에 계신다고 해도 허망한 소리이며, 어느 곳에 계시지 않는다 해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있다, 없다’ 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됩니다. 망념이 일어난 그 자리에 무엇이 망념을 일으켰는지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 망념이 없다면 부처 또한 없는 것입니다. 망념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바로 돌이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망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처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도 없다 생각해야 합니다. 구해야 될 부처도 없고 제도해야 할 중생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비로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생각에 끌려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본래 부처라는 것은 끌려 다니는 입장도 아닐뿐더러 늘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상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다 허망한 줄 알면 허망하지 않는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로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물음은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깨달음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느냐? 일상의 어묵동정(語默動靜,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는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일컫는 말) 간에 모든 소리와 빛깔이 모두 불사(佛事) 아님이 없거늘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겠느냐?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며, 부리 위에 부리를 더하지 말라”

조금 전에는 망념이 일어났을 때 부처가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이번에는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깨달은 자가 부처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이 조금 이상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철두철미하게 깨닫지 못한 것일 지도 모르는 일이고 〈금강경〉에서 짐짓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경책을 주기 위한 목적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를 떠나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불사로구나’ 하는 순간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불사가 아닌 것이 본래 없다고 하지만 일부러 불사로구나 하는 생각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며, 부리 위에 부리를 더하지 말라”는 말은 허망한 소리를 하며 부처님 말씀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침묵을 해도 어리석다 하고 말을 해도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르면 찾아야 합니다. 찾고 구해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찾고 구하지 말라 해놓고 어째서 다시 찾고 구하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것입니다. 또한 일체 모두가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라 하면서 다시 찾으라고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믿는 것에 떨어져 허망한 소리하는 것을 유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유정법’, 애초 정해진 것 없어

“그저 다른 견해만 내지 않으면 산은 산, 물은 물이오, 승(僧)은 승, 속(俗)은 속일 뿐이니라”

‘산’ ‘물’ 등 단어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따로 승과 속을 나눌 것이 무엇이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에 따라 ‘승려’ 는 승려고, ‘마을에 사는 사람’ 은 그저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분별합니다. 깨달음의 입장은 거울에 그대로 펼쳐져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거울로 산하대지를 비춰본다 하여도 거울에는 흔적이 없는 법입니다.

일반적인 거울은 물상을 비춰서 나타냅니다. 거울에 때가 묻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맑게 깨끗하게 닦인 거울은 사물도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진리 당처의 거울이라 하는 것은 ‘대원경(大圓鏡,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춰 보는 지혜를 거울에 비유하여 이름)’ 이라 말합니다. 그 자체가 거울입니다. 그 자체의 거울 속에서는 천차만별의 것이 다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여도 그뿐입니다. 거울에 때가 묻었나, 안 묻었나 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비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무엇이 비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둠을

> 망념 일으킨 원인 찾아내
> 허망 떨친 ‘실상’ 자각할 때
> 어둠과 밝음 동시에 비출 수 있어
> ‘깨달음’ 은 경계 허무는 작업

비추고, 밝음도 비추고, 어둠과 밝음을 동시에 비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산하대지와 일월성신이 모두 너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며,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너의 본래 면목인 것이다.”

우주의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롯된 모습이 시공을 초월해 천차만별이라 한 것입니다. 태초의 모습을 경전에서는 어떤 것도 자리한 적이 없다, 시간 · 공간도 없을 때 그 자리에 홀연히 바람이 불었다, 움직임이 생겼다 등 교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백 년, 천 년, 만 년이 지나도 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유정법(無有定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초 정해진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정된 입장을 가지고 ‘이것이 질서다’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무질서의 질서도 알아야 하고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무질서한 것도 함께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고정 관념화된 입장에서 늘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진리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만 진리가 아닙니다. 형상을 가진 입장에서는 모순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해야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옳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믿음을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곳에 허다한 일들이 있겠느냐?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니라. 허공 세계가 밝고 깨끗하여 한 터럭만큼도 너에게 견해를 짓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빛깔들이 그대로 부처님 지혜의 눈이니라.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 를 의지해야만 비로소 생긴 것이니, 경계 때문에 그 많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선사께서 허공에 색을 칠해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허공에 색을 칠합니까? 불가능합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경우 색을 칠해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칠해진 색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허공에 색을 칠한다는 말은 색을 칠할 수 있다는 입장에 먼저 서야 그 방법과 색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佛法)이라 하는 것은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체 만법이 그렇습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형상이 없는 법은 근본 진리의 입장만 자리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모양을 만들기 전의 움직임도 법이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을 때는 ‘불’ 이라 합니다.

삼라만상 모든 것은 법이 아닌 것이 없고 경계를 의지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는 말은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죽었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입장인데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내가 사라졌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내가 사라졌다 할 것이 아니고 정신이 사라졌다 해도 내가 사라졌다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내가 끊어졌을 때, 즉 ‘참나’ 를 찾았을 때 나와 더불어 사는 것이든 아니든 모두 허망한 경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경계 때문에 그 많은 지혜가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경계가 없으면 지혜도 없다는 말입니다. 병이 있기에 약이 필요한 것처럼 일체 경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일체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지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지혜를 얻는 일이고 경계를 허무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았고 수행을 통해 직접 체험했을 때 이 모든 것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려놓고 말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 없으면 지혜도 없다

“종일 말하나 일찍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종일 들으나 일찍이 무엇을 들었느냐? 그러므로 석가세존께서 49년 설법하셨어도 일찍이 한 글자도 결코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니라.”

하루 종일 듣고 말하였는데 한 번도 말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를 수도 없이 했지만 한 중생도 구제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49년간 셀 수 없이 많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용수보살이 용궁에 들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장경대 · 중 · 소 중에서 가장 작은 ‘소’ 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용수보살이 들어간 용궁은 어디였을까요? 용궁이 바다 제일 깊은 곳에 있다고 하니 1만2천미터 제일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일까요? 바다는 우리 마음보다 깊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마음은 무한정입니다.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대장경을 바다 속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 깨달았을 적에 승속을 막론하고 깨달은 자, 깨닫지 못한 자, 마구니까지도 모두 예배공양 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는 마구니까지 숨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한 부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앞날도 밝아지길 바랍니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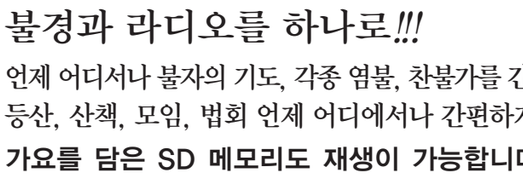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조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88년 포교 결실, 나눔과 화합으로 회향”

창원 구룡사, 10월 27일 창건 88주년 기념 법회

도심 포교의 효시 통도사 포교당 창원 구룡사(주지 신공)가 창립 88주년을 맞아 포교원력을 굳건히 다지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연다.

구룡사는 10월 17일 오전 10시 구룡사 설법전에서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을 초청 법사로 ‘창건 8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구룡은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학금은 총 3000만원으로 구룡사 신도 대학생,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불교학 전공 중인 학인 스님, 지역 저소득층 성적 우수 대학생, 혜밀 대안 학교 후원금 등이다. 대부분의 장학금은 신도들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마련돼 더욱 의미가 깊다.

아울러 구룡사는 법회 시간 동안 ‘어린이 ·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연다. 구룡사 어린이회 및 반야청소년회, 인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구룡사가 마련한 다채로운 행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구룡사의 신행단체 바라밀 선다회는 두리차회를 경내에 마련한다. 아울러 선다회 졸업생 시연이 오후 2시 설법전 내에서 진행된다. 원광다법, 접빈다례다법, 앵통말차다법 등 다양한 다도 시연으로 품격 높은 차 문화와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경내에는 바라밀 꽃꽂이회에서 ‘구룡산사의 가을정원’이라는 주제로 꽃꽂이 작품 전시회도 마련된다.

특히 지역민들을 위한 자리로 ‘창원 시민과 함께하는 제3회 가을달빛 산사음악회’가 오후 7시 열린다. 국악팀 피네, 성악 혼성중창단 프렌즈, 우담바라합창단, 가수 금잔디 등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포교로 큰 역량을 펼치고 있는 부산 쿠무다 주지 주석 스님의 사회가 어우러져 산사를 찾은 이들을 반긴다.


88주년을 맞은 구룡사 내 전경. 10월 17일부터 다양한 행사가 이곳에서 펼쳐진다.

1927년 구하 스님 원력으로 창건
지역민 · 신행단체 하나되길 서원

주지 신공 스님은 “주지를 맡고 ‘지역 사회 소통’과 ‘신행단체의 조직화 및 활동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장학금, 산사 음악회, 김장 나누기, 추석맞이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조직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찰운영위를 따로 구성하고 역량을 강화했다”며 “이번에 개최하는 창건 기념법회는 포교 원력과 방향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구룡사는 공찰이므로 신도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통도사 창원 포교당인 구룡사는 1927년 당시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 스님의 원력으로 창건됐다. 창건 이후 1984년에는 화재로 법당이 전소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2006년 현 주지 스님인 신공 스님의 원력으로 중창불사를 진행해 현재 안심당 요사채, 설법전 관음불상개금불사, 교육관 건립 불사를 발원하며 인근의 땅 천여 평을 매입했다. 이어 2012년부터 창건 기념법회 및 장학금 수여, 음악회를 통해 지역민들을 위한 나눔도 펼치고 있다.

현재 창원 구룡사는 1000여 명의 신도들이 활동하며 유마거사회, 우담바라합창단, 반야어린이회, 바라밀 선다회 등 다양한 신행단체를 이끌고 있다. 또한 구룡사 불교대학은 매년마다 2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인재 양성에 앞장서며 창원시내에 뛰어난 신도회 조직 활동으로 모범적인 사찰로 손꼽힌다.

주지 신공 스님은 “앞으로 지역민과 더욱 소통하고 가족 같은 곳, 감동을 주는 사찰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전통문화 전승 위한 ‘팔공산 승시’ 열린다

10월 7~11일 동화사 일대에서 개최

전통문화의 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6회 팔공 승시축제’가 열린다. 팔공산승시축제봉행위원회(위원장 덕문)는 10월 7~11일 동화사 일대에서 ‘제6회 팔공 승시축제’를 연다.

‘만남, 나눔, 소통, 화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승시축제에서는 5일간의 본행사 외에 국화축제관을 열어 10월 한 달간 시민들에게 가을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승시축제는 10월 7일 오후 5시 대한불자가수회 대구경북지회의 축하무대를 시작으로 8일 법요식이 진행된다. 이어 나현아, 권미희, 동화사합창단, 대구시립교향악단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9일에는 스님들로 구성된 우담바라밴드와 선무도, 정행 스님, 파란소리, 북한공연예술단이 출연해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성애, 인드라 스님, 권미희, 남상일 등이 만드는 국악음악회도 11일 열린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초등학생 씨름대회, 전통등 전시, 법고대회, 인경체험, 사찰음식경연대회, 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승시봉행위는 “사찰이 갖는 문화와 시장이 갖는 교류를 결합시켜 잊혀진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대중화를 넘어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파라미타,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 합창제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10월 10일 오전 10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작년 합창제 모습

전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합창제가 개최된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10월 10일 오전 10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를 개최한다. 대상 1팀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금상 2팀에게는 부산광역시시장상과 상금 150, 은상 2팀에게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상과 상금 100만원, 동상 3팀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상과 상금 7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어 지도교사를 위한 상과 상금도 준비된다.

이번 합창제에는 김해여자중학교 아젤리아합창단, 부산진여자고등학교의 해연합창단 등 총 13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파라미타는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재능을 발휘 할 기회를 제공하며 심성을 맑히고 합창을 통해 협동과 단결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제 3회 사하구민과 함께하는 불자의 밤


부산사하불교연합회는 10월 8일 오후 6시 ‘제3회 사하구민과 함께하는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을 개최한다. 사진은 작년 음악회 모습

부산 사하구 지역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위해 사하불교연합회 스님들이 나선다. 부산사하불교연합회(회장 혜우)는 10월 8일 오후 6시 약수사 사찰 내 산림공원에서 ‘제3회 사하구민과 함께하는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을 개최한다. 사하구불교연합회 소속 23개 사찰에서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이경훈 사하구청장, 노승중 사하구의회의장 및 사찰 신도와 지역 주민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는 제1부 식전 행사로 체리동산 우당탕, 살풀이 검무, 달마 포퍼먼스가 펼쳐진다. 이어 2부에서는 뮤지션 피네의 공연으로 문을 열어 사하불교연합회 회장 혜우 스님의 봉행사 및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진다. 놀이한마당으로 진행되는 3부는 홍은사 성각 스님의 색소폰 연주, 가수들의 무대, 화합 놀이마당 등으로 진행된다.

사하불교연합회는 “지역민들을 무료급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 뿐 아니라 사하구민들을 위한 한마당도 개최해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화합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위해 준비했다”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신라 천년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10월 8~11일 경주 일대에서 ‘2015 에밀레전’ 개최

‘2015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된다.

BBS불교방송과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조직위원회는 통일신라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을 주제로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을 개최한다. ‘성덕대왕신종’의 가치를 알리고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해 열리는 에밀레전은 올해 4회째를 맞으며 우수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축제는 ‘에밀레 모형종 타종’, ‘에밀레 주제관’, ‘신라 문화체험 마당’, ‘신라 간등회(看燈會)’, ‘전통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성덕대왕신종을 디지털로 복원해 처음 선보인다.

‘에밀레 주제관’은 30여 평의 기와집으로 조성되며 6개의 신라시대 범종 모형종 전시를 비롯해 성덕대왕신종 표면의 기록물인 명문 해석과 문양 설명 등을 전시한다. 또 성덕대왕신종의 특징과 과학성, 주조과정 등을 그림으로 쉽게 풀이해 소개한다. ‘신라문화 체험 마당’은 성덕대왕신종 비천상 탁본 및 인경 체험, 신라 금관 만들기, 신라 왕과 왕비 옷 체험 등 옛 것을 배우고 즐기며 체험하는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신라 간등회(看燈會)’는 한국 전통등의 효시인 신라시대 간등(看燈)을 재연하는 행사로 대형 공작등과 용(龍)등, 황룡사 9층 모형탑등을 비롯한 50여 개의 대형 전통등이 첨성대와 함께 은은한 야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디지털 성덕대왕신종’은 높이 4m, 최대 지름 2.5m 크기로, 신종의 ‘맥놀이 현상’을 화려한 LED 영상으로 표현한다. 지난 8월 국립대구과학관이 국내 최초로 조성한 디지털 성덕대왕신종과 비슷한 크기이며, 대구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6개 디지털 영상 역시 과학관의 협조를 얻어 축제장에서 재생하게 된다. 또 불교방송이 에밀레종의 설화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약 1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도 디지털 신종을 통해 방영한다.


2014년 열린 ‘신라 에밀레전’ 중 어린이 합창단 공연 모습

4톤 규모의 ‘에밀레 모형종 타종’은 에밀레전의 빼놓을 수 없는 체험이다.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직접 타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힘들기 때문. 매년 행사 때마다 가족단위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축제기간 매일 오후 3시 특별한 힐링 콘서트도 개최된다. 비천무, 선무도, 사찰학춤 등이 무대에 오르고, 지역 대학의 노래와 댄싱 동아리들도 흥겨움을 더하게 된다. 여기다 인도네시아 민족음악단, 캄보디아 민속무용단 등 ‘실크로드 경주 2015’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무대공연도 에밀레전에서 접할 수 있다.

‘2015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의 공식 개막식은 10월 9일 오후 6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성 국회의원,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에밀레 주제가’가 선보인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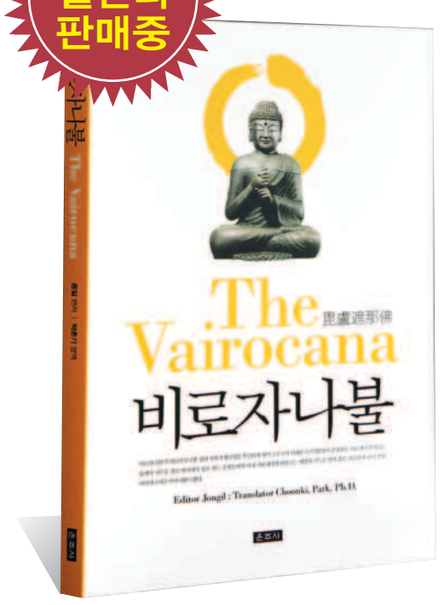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종일 스님의 비로자나불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21C 3대 과제 : ①인간과 자연의 화해 ②종교 간의 화해 ③지식과 삶의 화해



종일 편저 박춘기 영역
193쪽 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나무 암밤람함캄 청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에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中

■ 구입문의 : 도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

마하연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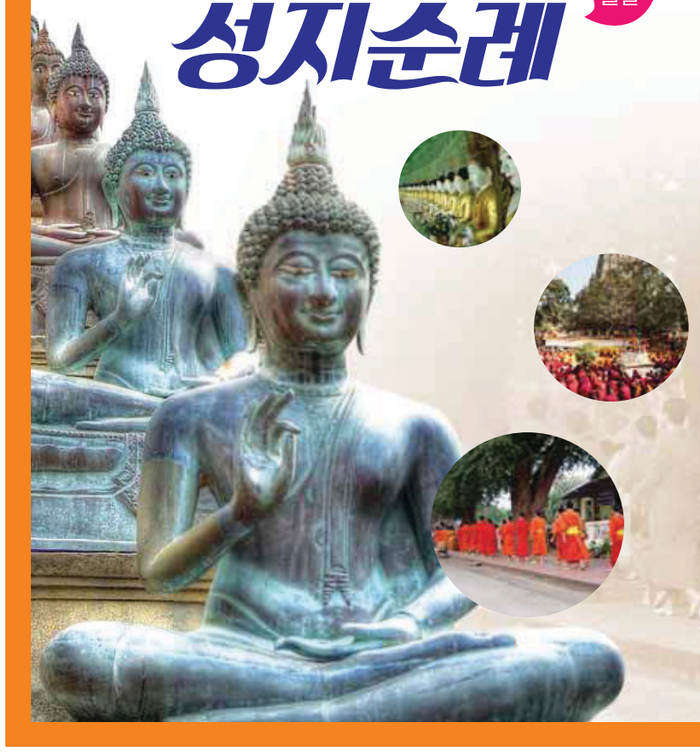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출발일: 2월 16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10월 20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출발일: 11월 28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10월 31일,11월 21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출발일: 12월 5일, 12월 12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출발일: 12월 2일, 12월 30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since 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저렴한 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 (051)515-888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 농협 : 121068-56-042256 ◆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벽걸이형)달력 200부 이상 @ 1000 원
- 백부이상 @1,2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 30cm × 63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 26cm × 19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

불교 통해 '畵삼매' 든 남종화의 대가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④ 소치 허련(小癡 許鍊)

조선 후기 남종화를 대표했던 소치 허련(小癡許鍊1809~1893)은 모란을 잘 그려 '허모란' 이라 불렸던 인물이다. 한때 헌종의 어전(御前)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명화를 함께 감상하는 영광을 누렸던 그였지만 시은(施恩)의 은택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전에서 물러난 후 여전히 객지를 떠돌며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의 일생에서 환한 햇살이 비쳤던 시기는 초의와 추사를 만나 사제의 정을 나눈 때이다. 그의 재주를 한눈에 알아본 추사는 성의를 다해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지체 높은 사대부들과 폭넓은 교유 또한 추사의 영향이었다. 이런 배려로 서화에 높은 안목을 넓힌 그는 1838년 12월경에 화삼매에 도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에서 확인되는데 내용은 이렇다.

허 소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림의 격조가 날로 나아져 공재(윤두서)의 습기도 다 떨어져 버리고, 점차 대치(大痴)의 문중으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병든 나는 이에 힘입어(나의)번뇌를 녹여 없애게 합니다. 그대와 화삼매를 참증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許生佳生也 畵品日勝盡祛恭齋習氣 漸入大痴門中 病枕賴以銷破煩惱 恨不使老衲子參證畵三昧也)

소치가 추사 댁에 머문 것은 1838년 8월경이다. 4개월 만에 추사의 뜻대로 그림의 격조가 날로 높아졌을 뿐 아니라 대치가 이룩했던 격조에 다다랐다는 것인데 이는 소치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의 호(號) 소치는 추사가 지어준 것으로 원말(元末) 사대가(四大家)로 칭송되는 대치 황공망(黃公望)처럼 대성하기를 바랐던 추사의 뜻이 담겨진 것이다. 따라서 소치의 팔목에 번뇌를 해소했다는 추사의 언표(言表)는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궁벽한 섬, 진도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림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의 재주를 먼저 알아본 숙부는 "내 조카는 반드시 그림으로 일가를 이룰 것이라"고 용기를 주면서 〈오륜행실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어렵게 책을 구한 그는 무더운 여름 동안 〈오륜행실도〉 4점을 모방했다고 하니 그의 열의는 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청장년기인 1835년경에 초의스님을 찾아갔다. 이 무렵 초의는 경향의 이름 있는 인사들과 널리 교유했으며 호남의 유생들 사이에서 '호남팔고(湖南八高)' 로 칭송되었다. 더구나 다산의 하명(下命)으로 그린 〈다산도(茶山圖)〉, 〈백운동도(白雲洞圖)〉는 초의가 수행뿐 아니라 시문과 그림에 조예가 깊다는 사실을 확인시켰고 추사의 1839년 12월의 편지에는 초의가 그린 불화의 격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나타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소식이 끊기고 막혔다가 마침 종자(從者)로부터 (그대가) 그린 관음진영을 얻어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를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마는 정말 뛰어난 호상(好像)이구려. 하지만 (관음진영을 그리는) 필법이 언제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소. 경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개 초묵법(焦墨法: 진한 먹을 사용하여 그리는 것)은 전하기 쉽지 않는 오묘한 진리인데, 우연히 허소치가 이어 드러냈으니 전해지고 전해진 초묵법이 또 그대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관음상권(觀音像卷)은 황산 김유근상서께서 소장하려하십니다. 황산 대감께서 그대가 그린 관음상의 하단에 찬탄하는 글을 손수 쓰고자 하시니 초의 그대는 선림예단(禪林藝壇)의 아름다운 얘깃거리입니다.(一以阻截 遞從人獲見所ø觀音眞影 何異見師 殊勝相也 但筆法何時到此地位歟 讚歎不能已 大 焦墨一法 爲不傳妙諦 偶因許癡發之 何料墨輪輪轉又及於師也 此像卷見爲黃山尙書所藏 尙書將欲手寫師所作讚語於其下 洵爲禪林藝壇一段佳話)

선가에 전해진 초묵법(焦墨法: 진한 먹을 사용하여 그리는 것)이 초의에게 전해졌고, 이를 소치가 이었다는 사실이 추사의 편지로 확인되었다.

초의가 그린 관음상을 당시의 세도가인 김조순의 아들 황산 김유근이 소장하려고 했던 명화(名畵)이며 황산이 그 불화에 발문까지 쓰려고 했을 만큼 그림에 대한 초의의 명성은 높았다. 그러기에 그림에 열망을 지녔던 소치가 초의 스님을 찾은 것은 필연이었다.

그의 〈몽연록(夢緣錄)〉에는 당시의 상황을 "초의선사는 (나를)따뜻하게 대접해 주었고 방을 빌려주며 거처하도록 해 주었다(草衣款曲仍借榻留寓)"라고 회상하였다. 이후 소치는 대흥사 한산 전에 머물며 초의에게 불화를 배우는 한편 녹우당의 해남윤씨의 가장본 공재화첩과 〈고씨화보(高氏畵譜)〉, 그리고 공재 윤두서(恭齋尹斗緖)의 〈가전보희〉, 〈윤씨가보〉를 빌려 열람하는 등, 그림에 열중한다. 그가 윤 씨의 가전 본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은 꿈같은 일이었기에 "수일간 침식을 잊을 정도로" 감동을 받는다.

이는 모두 초의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초의의 이런 인맥은 다산의 문하에서 해남윤씨 후손인 윤종민, 윤종영, 윤종심, 윤종삼 등과 동문수학했던 인연 때문인데 이는 소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의 〈몽연록(夢緣錄)〉에는 스승 초의와의 인연을 "아주 어릴 적에 초의선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멀리 돌아다닐 생각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이처럼 홀로 담담하고 고요하게 살았겠는가(早年不若草衣 何以遠遊之想 乃至今日而若是若孤淡寂也)"라고 하였다. 그에게 초의는 서화의 안목과 추사를 맺어준 은인이었다.

그가 "(초의선사와)수년을 왕래하다 보니 기질과 취미가 서로 동일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다(往來數載 氣味相同 至老不開)" 고 한 사실에서 가난 속에서도 담적(淡寂)할 수 있었던 속내는 초의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드러낸다.

불교와 가까웠던 그의 사유세계는 초의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그가 한산 전에 머물며 불화를 그렸던 사실이나 추사와 함께 '오백나한진영첩' 을 참견(參見)하며 탁마했던 것에서도 그의 친불교적 경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튼 그의 일대사(一大事)에서 첫 행운은 초의를 만난 일이요, 두 번째 그의 인생행로를 새롭게 열어 준 이는 추사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추사를 만난 것은 1838년 8월경이다. 당시 금강산 유람길에 오른 초의는 소치의 그림을 가져가 추사에게 보여 주었다. 추사는 한눈에 소치의 진면목을 간파하고 "압록강 이동에 소치만한 화가가 없다"고 평가한 후 초의에게 "허군의 그림 격조는 거듭 볼수록 더욱 묘해 이미 격을 이루었다고 할 만합니다. 다만 보고 들은 것이 좁아 그 좋은 솜씨를 마음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으니 빨리 한양으로 올라와 안목을 넓히는 것이 어떨지요(許君畵格 重見益妙 已足成格 特見聞有拘 不能快ª9饜足函令上來 以拓其眼如何)"라는 편지를 보내 소치의 상경을 종용하였다. 한양에 머물던 초의는 서둘러 이 사실을 소치에게 전한다.

이 기별을 듣고 내종형과 함께 상경하던 소치는 소사 근처에서 초의를 만나 칠원점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다음 날 초의와 작별을 고한 후 스승이 써준 편지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당시 진도에서 한양까지는 20여일이 족히 걸리는 먼 길이었다. 겨우 월성궁 추사 댁에 도착한 그는 "초의선사가 전하는 편지를 올리고 곧 추사선생에게 인사를 드렸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마치 옛날부터 서로 아는 것처럼 느꼈다. 추사 선생의 위대한 덕화가 사람을 감싸는 듯했다 그는 당시 상중이었다(所前納草師書封旋 卽邀入拜謁 初筵如舊相識 盛德浹人 公時自居憂)"고 하였다.

이 무렵 추사의 상중에 있었다. 그의 부친 김노경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추사의 문하에서 서화 공부에 몰두하던 1840년에 추사의 제주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제주로 유배된 스승을 찾아 3번이나 대정을 오고갔던 그는 추사와 초의를 이어준 전령이었다. 여기에서 소치는 '오백나한진영' 을 모사하며 불화의 세계에 몰입했던 듯한데 이는 1843년 7월에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에 알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소치는 매일 제 곁에서 많은 고화명첩을 보더니 지난해 겨울과 비교하면 또 얼마나 격조가 높아졌는지 그대와 함께 참증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오백나한진영' 수십 권을 보고 있는데 만약 그대가 보면 분명 크게 욕심낼 겁니다. 허 소치와 함께 날마다 펴보는 이 즐거움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許痴日在傍側 多見古畵名帖 比之前冬 又長幾格 恨未令師參證耳 見有五百佛眞影數十册 師若見之 必大生欲矣 與許痴日日對閱此樂何極)

소치의 그림 격조는 이 무렵 최상의 화격(畵格)을 이룬 듯하다. 이는 추사가 수집한 고화명첩을 토대로 자신의 그림 세계를 마음껏 확장하였다. 아울러 스승과 함께 '오백나한진영' 을 참구하며 불화의 선미(禪味)도 이룬 때였다. 이 시절 그가 추사와 나눈 예술의 이상은 그의 서화에 밑거름이 되었고, 추사의 불교관은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세월은 유한한 것이다. 그에게 추사의 죽음은 최상의 후견인을 잃은 것이며 예술을 담론할 스승을 잃은 것이었다. 고향 진도로 돌아가 운림산방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의 서화는 세상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이는 정학연의 시를 통해 드러난다. 내용은 이렇다.

목단구(木丹邱)보다 그리는 법이 새로워라(若木丹邱腕法新)
동쪽 울타리 몇 송이 국화, 담담하기 그 사람 같네(東籬數朶淡如人)
국화 그림을 보더라도 다만 국화만이 아니니(縱看畵菊殊非菊)
이는 곧 소치가 (국화의)진수를 그린 것이라(便是痴生自寫眞)

소치의 그림 솜씨는 피사체의 골수를 그리는 능력을 타고났다. 정학연의 소치화첩 발문에 "마음속에 한 폭의 산수를 채비하여 늘 밝은 정신을 품어 세속을 초월하는 풍취가 있은 다음에야 붓을 들어 삼매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 경지는 소치 한 사람뿐이다(心窩裏準備一副邱壑 神明中常蘊 傲世絕俗之姿然後 落筆便入三昧 此世界小癡一人而已)" 라고 극찬하였다. 남종화의 일격을 이룬 그의 그림은 그가 온축했던 예술의 이상 세계를 드러낸 것이다.



소치 허련의 '소치묵묘(小癡墨妙).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붓을 들어 삼매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 경지는 소치 한 사람뿐이다"라는 극찬의 이유를 알 수 있다.

불교 禪家에 이어진 초묵법
초의 선사가 소치에게 전해
소치 허련, 한산전 머물면서
불화에 열중… 경지 이르러
"붓으로 삼매 경지에" 극찬



미산의 소치 진영. 소치는 조선 남종화의 대가이면서 불교에도 조예가 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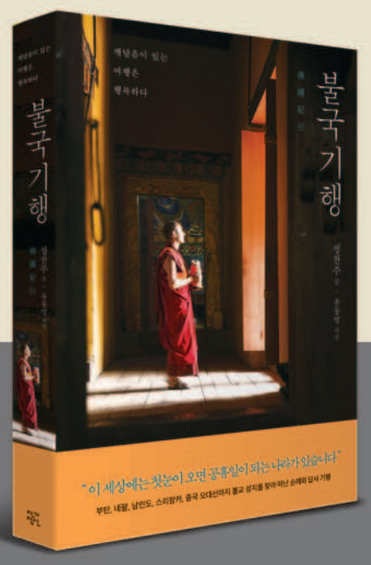
소치 허련의 배의관음도(박동춘 소장). 허련은 초의에게서 선가의 초묵법을 배웠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종교적 성찰을 통한 울림과 감동, 구도 문학의 선구자, 정찬주

"이 세상에는 첫눈이 오면 공휴일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불교 성지를 찾아 떠난 순례와 답사 기행

순례하면서 나그네로 다니지 말고 주인공으로 다니기 바랍니다. 예컨대 전생에 왔던 곳인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순례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순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고 듣는 것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_『불국기행』 236쪽, 수불 스님 법문 중에서

깨달음이 있는 여행은 행복하다
불국기행 佛國紀行
정찬주 지음 | 유동영 사진
352쪽 | 값 18,000원 | 4도 | 반양장

"한글은 절에서 태어났다!"



세종대왕과 신미 대사의 한글 창제 이야기

작가는 소설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확대시키는 동시에 지적 감동에 취하게 하는 큰일을 해냈다. _조정래(소설가)

한글이 불교 사상의 한 유산이라는 해석은 우리 삶의 미래에 찬란한 이정표를 제시해준다. _한승원(소설가)

이 소설이야말로 한글 창제의 진실을 밝히는 영원한 횃불이다. _정호승(시인)

태조에게 무학이 있었다면 세종대왕에게는 신미가 있었다!
천강에 비친 달
정찬주 지음 | 328쪽 | 값 15,000원



©백종하

주소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07 2층
전화 031-955-6230 | 팩스 031-944-2858
홈페이지 www.jakka.co.kr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윤회의 굴레에 빠져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⑳ 사오정과 저팔계의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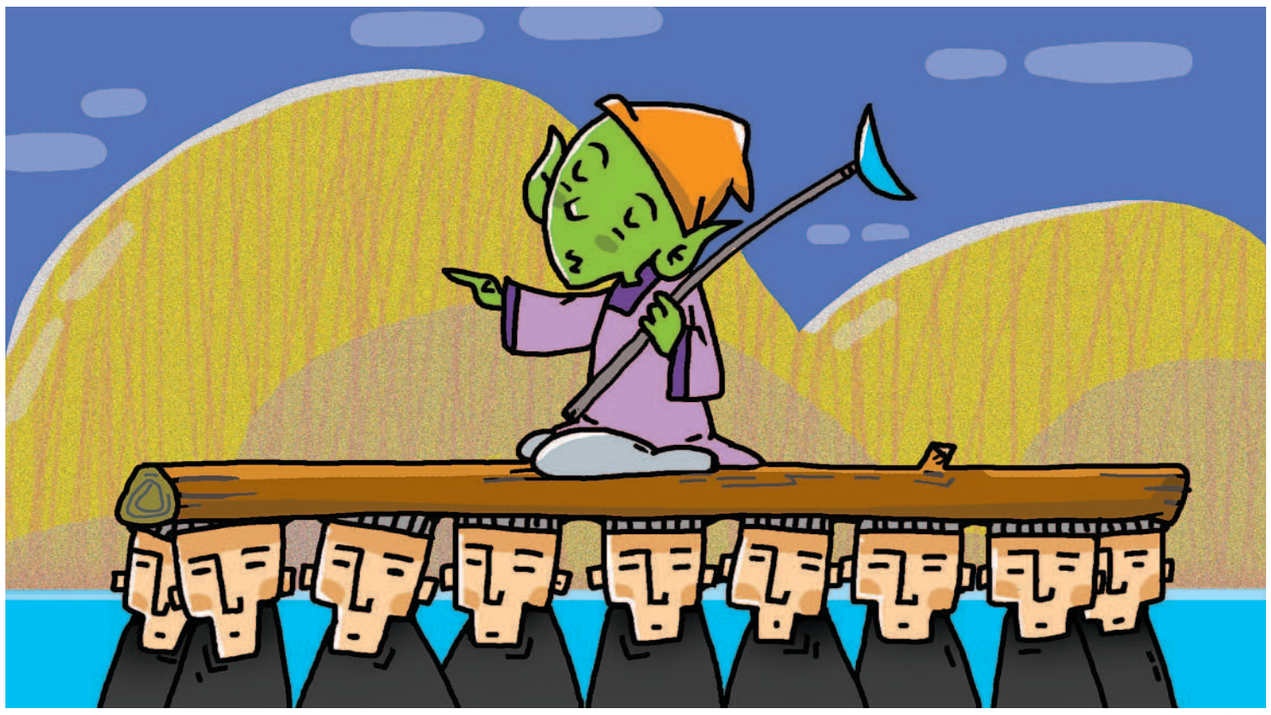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저번에 관세음보살이 사오정과 저팔계 만나 불문에 들이고, 서역에 불경 가지러 오는 사람 보호하면서 오계끔 예비한 이야기 하였죠? 여기서 잠깐 사오정과 저팔계 만나는 대목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사오정은 유사하에서 요괴로 살면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행인들을 잡아먹었다 합니다. 그 가운데는 서역 땅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홉 사람의 해골은, 거위 털도 가라앉아 버린다는 유사하에도 가라앉지 않고 뜬다는 겁니다. 이 대목! 참으로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아서 뗏목도 띄우지 못하는 유사하! 그런 유사하에도 가라앉지 않고 뜨는 불경 가지러 가던 이들의 해골! 얼마나 선명한 대비입니까? 그 분들의 뜨거운 마음, 불법을 구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였기에 유사하에도 가라앉지 않았을까요? 현장법사가 불경을 가지러 가서 성공적으로 그것을 이룩했기에, 세상은 현장법사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전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길을 추구하였지만 실패했던 분들의 뜨거운 구도심은 그대로 묻혀버리는 것일까요? 실패했기에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마음은 유사하에도 가라앉지 않는 해골처럼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들은 결국 역할을 합니다. 뒷이야기 좀 미리 당겨서 할게요. 거위 털도 가라앉기에 뗏목도 띄울 수 없는 유사하를 어떻게 건널까요? 경 가지러 가기 위해서는 건너지 않을 유사하, 그 강에 유일하게 뜨는 것은 바로 그 전에 경을 가지러 가다 사오정에게 잡혀먹힌 아홉 분의 해골뿐입니다. 결국 그 해골로 뗏목을 만들어 유사하를 건널 수밖에요.

바로 그것이 진실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성공한 이들의 찬란한 기록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성공은 언제나 그 바탕에 수많은 앞선 이들의 희생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고귀한 마음과 열정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뗏목이 되어 험난함을 건너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그 이름 없이 스러진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나게 성공한 이름들의 뒤에 가려져 있는 수많은 이름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잘나서 이 험한 세상을 그런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의 파도를 헤쳐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 뗏목이 되어주신 수많은 앞선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만난 지극한 복을 누리는 것부터가 그런 것이라는 걸, 서유기는 유사하에 뜨는 해골들도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상한 것 아니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부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늘 잊고 살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 그 고귀한 은혜를 뗏목으로 삼아서 우리는 고해의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고귀한 희생의 상징. 해골의 뗏목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유기 읽다가 이 대목에서 울컥하는 느낌에 한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 이 대목에서 울컥하는 마음에 글을 더 읽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하하. 그래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 많으니까 그만 앞으로 나가볼까요?

'유사하'는 경쟁사회의 단면드러내
사오정은 승자독식 세계의 인간
저팔계는 욕망때문에 돼지로 환생
세속의 욕망이 넘치는 사바세계 표현

그다음 저팔계 나오는 대목의 이야기 한번 해보지요. 저팔계도 하늘에서 벼슬하다 죄를 지어 하계로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저팔계 이야기가 좀 재미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 보자고 어미 자궁 속으로 들어왔는데, 길을 잘못 들어 암퇘지 자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윤회의 비밀을 담고 있지요. 불교의 윤회전생은 염라대왕이 전생을 생활기록부(?) 보고 "너는 무엇으로 태어나거라"하는 판결을 내리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죽어 몸을 떠난 업식(業識)은 감각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꿈속에서 무엇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평생 지은 업과 가장 잘 맞는 곳에 가면, 그곳이 너무도 편안하고 좋아 마치 하늘 세상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눌러앉으면 거기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 개 같은 짓만 해서 개와 습성이 가장 잘 맞는 업식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감각기관은 없으니까 보고 듣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개 집 가까이 가면 자기와 분위기가 너무 잘 맞아서, 마치 꿈속에서처럼 황홀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눌러앉으면 바로 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저팔계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길을 잘못 들어 돼지의 자궁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곳이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여겨져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곳이 돼지의 자궁이었고요. 그의 업식이 돼지로 상징되는 그 무엇과 가장 잘 맞았기에 그곳에 태어난 것이란 말이지요. 관세음보살이 개과천선을 권하는 말에 발끈하는 저팔계의 반응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지요.

관세음보살이 앞길 막는 나쁜 업 짓지 말라 하자 저팔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길이라고요? 앞길? 당신 말에 따르자면 바람이나 마시고 살아야겠군. '관법에 따르면 맞아 죽고, 불법에 따르면 굶어 죽는다' 고 하는 말이 있지. 난 관둘래, 그만둬! 난 이대로 살래! .……. 두 겹 세 겹, 아니 천만 겹의 죄가 쌓인다 해도 난 겁날 것이 없어!"

죄업의 무서움을 모르는 아둔한 중생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관법을 따르면 맞아 죽는다는 말은 세속의 법 그대로 적용하면 형벌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법 지키지 않고 적당히 나쁜 짓도 하면서 살겠다는 것이겠고요. 그다음 "불법을 따르면 굶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 불교가 사람 굶어 죽게 하는 종교라는 뜻인가요? 심하게 말하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불교는 욕망을 버려라, 소유가 고통을 낳는다 하는 식의 가르침을 주니, 그것에 따르면 세속적인 욕망 추구할 길이 없겠다는 불안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깃장 놓는 저팔계 달래느라 관세음보살 고생이 심하셨겠지요? 그런데 저팔계 같은 마음이 어디 저팔계뿐이겠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탐욕부리며, 죄지으며 살겠다는 중생들, 중생들, 중생들……. 이것이 사바세계의 모습이요, 그런 사바세계의 중생들 구하시겠다는 불보살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잠깐 묵념!

이크! 잠깐 말이 잘못 나갔나요? 그렇지만 삼쾌선생은 이 대목에서 현실 불교의 모습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과연 "욕망을 버려라", "소유에서 벗어나라" 하는 식의 소극적, 부정적 표현만을 일삼는 것이 불교의 참된 본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저팔계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 거죠. 욕망 버리고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대체 에너지도 안 주고 에너지의 근원을 고갈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미 말했지요? 기억하시지요? 욕망을 서원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불자의 삶이 정말 '굶어죽는 삶' 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굶어 죽는 삶의 모습을 연출하는 불교가 아니라 당당하게 서원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 가는 불자, 서원의 힘으로 지금 여기에 불세계를 일구어가는 불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해두고 싶은 게 있네요. 스님, 즉 출가자의 규범으로 주어진 것이 재가자에게까지도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스님들을 존중하니까 스님들의 삶이 재가자에게도 모범적인 삶이라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스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참된 정신이라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기설(對機說), 즉 어떤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설해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출가자라는 특별한 조건에 맞게 설해진 것이, 그 조건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겠지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님들에게는 음계(?戒)가 가장 무거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적인 것을 철저히 금하는 것이죠. 율장의 첫머리가 바로 성행위에 대한 금지로 시작합니다. 스님들은 생계의 모든 것을 재가자에게 의존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수행에 집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성적인 에너지는 가장 강력하고 통제가 힘들기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출가자의 규범 가운데 첫머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님의 삶이 이상적으로 여겨지면 어찌 됩니까? 그 규범이 이상적이라 하여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르면 어찌 됩니까? 인류 멸종! 이것이 바로 그 결론 아닌가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을 이상으로 내세우면, 재가자의 삶은 불법 문중에서 이등 시민의 삶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이번 삶에서는 도저히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 이번 생에서는 좋은 업이나 지어서 복락을 누리고 다음 생을 기약하자! 다음 생에는 꼭 출가를 해서 불도를 제대로 닦아보자! 이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는 것이요, 부처 될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지금부터 부처님 되는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스님은 스님의 방식으로, 재가자는 재가자의 방식으로! "지금 생에서는 불법 수행 안 될 테니 좋은 업이나 짓고, 불법 수행은 다음 생으로……."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다음 생의 업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 지금 생에서 마음먹었던 것이 자세히 생각날 턱이 없을 터이니, 다음 생에서도 또 미루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미루었던 버릇은 남을 테니까요. 그 버릇이 바로 업이니까요. 불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불교를 믿었기에 불교가 '굶어 죽는' 종교가 된 것이라고, 삼쾌선생 좀 위험한 주장 내놓습니다!

이런 주장, 좀 위험한 주장 같지만 이 주장이 옳다는 증거가 있습니다요. 많은 불자들이 이번 생에는 좋은 업 지어서 세속적인 행복 누리고 다음 생에는 출가수행하자는 방식으로 살고, 그 마음이 다음 생에 계속 반영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출가자들이 나날이 늘어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결국 미루었던 버릇만 남아 계속 불법수행은 뒷전으로 미루는 불교만 남았다는 말이고요. 터무니없는 증거라고 너무 야단치지는 마시고요. 아무튼 불법수행은 잠시라도 미루어서는 안 되고, 바로 여기 우리 삶의 무대가 수행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무대를 수행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신이야말로 바로 대승 정신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피어난다!",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탁악세라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연꽃을 피우는 참된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가치 없고 열등한 삶으로 소외시키지 않고, 바로 그 삶이야말로 깨달음을 이루어내는 바탕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유마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근본이 아닐까요?

다시 서유기로 돌아오죠. 그래서 바로 이제 현장법사가 그런 대승불교의 경전들을 가지러 부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불교의 모습을 타파하고 참된 대승의 정신을 찾는 구도의 길, 다시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지요.

대한민국 새로운 장례문화
화분장묘 분재공원
특허권취득(특허 제10-1467668호)!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 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에서 아래와같이
전국 각지역총판을 모집합니다. 많은관심바랍니다.
자격조건
전국 사찰 및 교회 종사자분들과 개인토지보유자분(임야/개발제한구역임야 제외 | 농지(전/답 보유하신 분) 우선권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 투자자분들도 상담환영합니다.
각지역모집구역 소개
서울 | 부산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북도(일부) | 경상남도 | 제주도 | 대구
한국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 회장 : 서정율 | 대표이사(특허등록자) : 김성만
◇본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2109호 (역삼동,성지하이츠 2차빌딩) ◇홈페이지 : www.화분장.kr / www.화분장.net
연락처 : 서울본사 02)555-4452 / H·P 010-8911-4452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1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관계의 성찰은 화쟁으로 가는 길



원효의 혜안-화쟁(4)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

문(門) 구별에 의한 조건 인과적 이해가 선물하는 새로운 언어능력을 원효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여러 가지의 다른 견해가 엇갈려 쟁론하고 있을 때에, '있다는 견해'(有見)에 의해 설한다면 '없다는 견해'(空見)와 다를 것이요, 또 만일 '없다는 고집'(空執)에 동의하여 설한다면 '있다는 고집'(有執)과 다를 것이다. 그리하여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쟁론만 더욱 일어나게 할 것이다. 또 저 두 가지에 다 동의하면 자기 안에서 서로 논쟁할 것이고, 저 두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둘과 더불어 서로 논쟁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같지도 않게 하고 다르지도 않게 하며 설한다. '같지 않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취하면 모두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르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 뜻을 이해하여 말하면 허용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감정(情)에 어긋나지 않고, 같지 않기 때문에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감정(精)에 있어서나 이치(理)에 있어서나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응하여 말한다'고 하였다."

견해의 문(門)을 구별하여 화쟁하려면, 다시 말해 견해를 조건 인과적으로 이해하여 이견의 불통과 다툼을 치유하려면, 선취되어야 할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있다. 담론 주체들 간의 상호신뢰 확보가 그것이다.

인간의 견해는 대부분 사적, 집단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 파당적 이익 확보와 증대를 위해, 언어의 동일화와 배제의 속성을 적극 활용하여 견해 차이를 정복과 섬멸, 승패의 문제로 대접하고, 견해의 무조건적 · 절대적 타당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빈번하게 확인한다. 그럴싸한 논리적 주장이 실은 파당적 이익을 보호하고 관철하기 위한 언어적 위장이라는 사실을.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내 의견은 ~한 조건인과에서 타당 · 부당하고, 당신 의견은 ~한 조건인과에서 타당 ·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의견의 조건적 타당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조정해 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 견해를 관철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조건인과를 내세우며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견해의 문(門)을 구별해 보자고 제안하는 것이 유효할까? '나만 손해다. 싸움에서 밀릴 뿐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있을까?

인간사 현실은 예상보다 냉엄해 보인다. 나의 선의와 합리적 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기회를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다. 단기간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의 구축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만이 냉소와 불신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분기점이 된다. '견해의 조건인과를 사실대로 살펴 조건적 · 부분적 타당성(一理)을 모아 봅시다'라는 제안과 태도가, 단기적으로는 상대에 의해 악용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도,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런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사회적 여론과 장치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이런 어리숙한 인간 보았나. 실컷 이용해 주마' 하던 상대가, 지속되는 진정성과 사회적 요청 및 압박으로 인해 마침내 변화되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기간의 손익계산에 연연하지 않는 이러한 영웅적 선택과 노력이 가능하려면, '인간에 대한 근원적 신뢰'가 필요하다. '언젠가는 진실의 진정성에 공감하여 변할 것이다'라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인간 신뢰가 요구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적어도 원효는 그런 근원적 인간 신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말기저술인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에는 본각(本覺)사상이 핵심부를 차지한다. 일찍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본각(本覺) · 불각(不覺) · 시각(始覺)의 각(覺)사상을 주목했던 원효는, 사상적 탐구의 완결판에서도 본각사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본각이란 존재 차원의 본래적 완전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의 인지적 프리즘에 의해 굴절되기 이전의 온전한 존재 지평이 그대로 열린, 인지적 각성을 '본연적 깨달음'(本覺)이라 부른다. 이 본래의 온전한 존재 지평을 은폐시키고 굴절시키는 인지적 프리즘이 '깨닫지 못함'(不覺)이고, 은폐와 굴절의 어둠을 밝혀 본래의 온전한 존재 지평을 밝혀가는 과정이 '비로소 깨달아 감'(始覺)이다. 원효는 모든 인간은 본각의 터 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 본래의 옥토를 여래장(如來藏)이나 불성(佛性)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실은 불각(不覺)의 무성한 잡초와 해충으로 인해 옥토의 풍요로운 결실력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옥토에는 본래의 건강한 지력이 있다. 성급하게 농약 살포하고 인위적으로 비료 뿌리지 말고 땅의 건강한 힘을 믿어 잘 간수해 주면, 땅은 서서히 본래의 풍요로운 결실력을 작동하여 마침내 잡초와 해충이 어쩌지 못하는 건강한 활력을 드러낸다.



서울 효창공원 내 원효대사 동상. 원효 대사의 화쟁은 인과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원효는 옥토 본래의 자생력과 자기회복력을 '본각의 불가사의한 훈습(熏習)'이라 부르며 주목한다. 본각의 지평을 드러내게 하는 조건들을 쉽게 계산하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불가사의'라 하고, 마치 연기에 시나브로 몸을 맡기면 어느새 온몸에 냄새가 배이듯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훈습'이라 한다.

내적, 외적 조건들을 갖추어 주고 잘 선택하기만 하면(始覺), 까마득히 잊어 있는 줄도 몰랐던 존재 본연의 온전한 지평에 내재하던 자기구현의 힘이 불가사의하게 꿈틀거리며 작동하여(본각의 불가사의한 훈습), 결국에는 본연의 온전한 존재 지평과 하나가 된다. 이것이 본각 · 불각 · 시각의 기본 의미이다.

원효는 '본각의 불가사의한 훈습'에 의한 '삶의 새로운 구현'을 굳게 확신한다. 이 존재 차원의 신뢰에 기반하여, 그는 현실의 살벌한 언어 각축전에서 문(門) 구별의 화쟁에 필요한 상호 신뢰를 전망한다.

언어로 싸우는 인간의 행적에는 각다귀 같은 이익 다툼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대세는 아니었다 해도, 언어능력을 통해 진실과 공익을 향해 걸어온 진보의 자취도 뚜렷하다. 동일화와 배제, 무조건화 · 절대화의 무지와 독단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인과적 사유의 계발과 실천도, 범주와 유형을 달리하면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자연과학뿐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의 모든 영역에서는, '차이와 관계를 주목하는 성찰' '무조건 · 절대 · 본질주의적 사고를 극복하는 관계적 사유와 조건 인과적 사유'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견해의 문(門)을 구별하여 소통함으로써 진실과 관계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원효의 화쟁이, 공허한 낭만이 아닐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원효는 언어로 싸우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셈이다.

'견해를 주장할 때는 그 견해를 성립시킨 조건들과 인과관계를 가급적 정확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라. 다른 견해의 주장을 대할 때도 그 견해를 성립시킨 조건들과 인과관계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고 노력하라. 이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지성의 힘, 진실과 우애를 구현하려는 고품격의 정서적 진정성이 필요하다. 인간에 대한 근원적 신뢰를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대상화시켜 마치 거리 두고 관찰하듯 성찰하라. 그리하여 견해의 조건 인과적 이해와 이를 위한 지성과 감성의 능력에 결핍을 발견하면, 애써 노력하여 계발하고 보완하며 향상시켜라. 인간은 그럴 수 있는 불가사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위대한 잠재력을 외면해 버리면, 언어의 응달에서 격렬하게 싸우다 공멸할 것이다.' 〈끝〉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소가죽으로 신발을 만들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화 하나 소개하겠다. '야단법석'이라는 말에 익숙해 있듯이 부처님께서도 일 마친 농부들을 위해 저잣거리에서 설법을 자주 하셨던 모양이다. 달도 밝지 않은 밤길은 부처님이나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한 부자가 고심 끝에 부처님께 하는 말이다. "저의 재산을 처분해 소가죽을 사서 부처님이 오가는 길에 깔아드릴까 합니다."

그때 부처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오고 가는 길목에 소가죽을 깔려면 얼마나 많은 소의 희생이 있겠는가. 내 발에 맞춰 소가죽으로 신발을 지어 신으면 가는 곳마다 편안할 텐데"

그렇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의 전환이 행 · 불행을 좌우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므로 증오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고, 한 생각이 잦아들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면 앉아야 한다. 앉아 있거든 누워야 한다. 신체 부위가 낮아질수록 치솟는 화도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의 전환, 열고 닫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 될 수도 있다.

유명한 기도처, 영험 있는 법당은 내 마음 자세에서부터 비롯됨을 잊지 말자.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가정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무릎이 아프도록 절을 해도, 그것은 목청으로 하는 노동, 몸 폈다 오므리는 운동에 불과할 터이다.

가정이 편안해야 하고 가족이 화목해야 참기도이다. 부부끼리의 신뢰는 신앙의 힘보다 더욱 위력적일 수 있을 터이다.

내가 섬기고 모셔야 할 분은 법당에 모셔진 불상만을 아닐 것이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반려자와 이웃들이 살아 숨 쉬는 부처님이자 보살님이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환히 열리는 것이다. 미움과 증오, 원망은 내 탓일 뿐 당신 탓은 아닌 것이다. 마음에 안개가 걷히면, 당신 탓이 아닌 내 탓임을 알 것이다. 기도하라 남편과 아내를 위해. 그리고 내 가정과 이웃을 위해.

바람이 되어 흘러가는 물이 되어

바람은 머물지 않는다. 빠르든, 더디든 스쳐 지나갈 뿐이다. 바람에게는 뿌리가 없다. 날개뿐이다. 쉼 없이 어디론가 떠나가는 것이다. 바람에겐 미련도 없고 바람에겐 머뭇거릴 정(情)도 없는 모양이다.

가끔씩 흔적을 남기긴 하나 모양도 없이 사라져간 뒤의 일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람둥이라는 닉네임(Nickname)이 붙어 다닐 경우가 있다. 이쪽저쪽을 기웃거리며 먹을거리 사냥에 질이 난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여자든 남자든 바람둥이들은 대개가 모질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다. 매섭게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이들은 어찌 보면 바람의 본성(本性)을 흉내 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흔히들 끼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아마추어보다 프로에 가까운 기질을 소유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게다.

끼는 본래 바람기, 바람 기운의 준말이다. 머물러 있는 물은 썩기 쉽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이, 사람에 있어 아이디어 뱅크(Bank)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자에게 끼가 있다 하면 기생 기질이 있는 것으로 거북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배우나 작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끼는, 타고난 가능성의 다른 표현이다.

분명한 일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바람의 본성이 살아 있다는 점일 것이다. 권태와 불만은 바람의 본성(本性)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

사람에게 바람기운(끼)이 없으면 자기 발전도 창의력도 추진력도 잃게 된다. 바람처럼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본질적 욕구가 문명과 문화, 이데올로기의 각기 다른 꽃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대는 끼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끼가 없는 사람인가. 눈치 살피며 중간쯤에 어정거리며 서 있을 필요가 없다. 끼는 살아 있는 자의 특권이요, 증명서이기 때문이다. 바람만 불어도 여전(旅錢) 한 닢 마련 없이도 어디론지 떠나고 싶은 자. 당신과 나는 살아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다. 털고 바람처럼 일어 설 일이다. 방안에 앉아 있는 영웅보다 밖으로 나다니는 머저리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아름다운 법이니까.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사람은 끊임없는 변화를 원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9.24~2015.9.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2	너무멀리서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3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4	시끄러운원숭이잠재우기	아잔브라흐마/각산	나무옆의자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6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7	모든 숨마다, 나	틱낫한/김성희	아이넷북스
8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9	인생의약상자	마스노`뚜/김정환	담앤북스
10	선한마음(나를바꾸고세상을바꾼다)	오갠틴래도제	지영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자기 성품이 아미타불이요, 마음이 곧 정토이다"



생사 해탈의 오직 한길

상이암 엮음
비움과 소통 펴냄
1만 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임종을 당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큰 고통이 일어날 때에 자유자재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한 때에 만용을 부리다가 길이 악도(惡道)에 떨어지는 후회막급의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마명보살이나 용수보살이 이미 다 조사(祖師)이면서도 분명히 말씀하여 왕생하는 길을 간절히 권했거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왕생을 부정하겠는가?"

서산대사(休靜, 1520~1604년)는 〈선가귀감〉서 염불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일부 선승들을 경책하는 법문을 많이 했다. 대사의 고구정녕한 이런 법문은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 더욱 절실한 당부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고승과 선사들 염불 법문 수록
염불정의와 공덕 상세히 설명
"수시로 독송하면 지혜공덕 받아"

이 책은 역대 고승과 선사들의 가사체 왕생법문곡과 염불법문을 수록해 염불행자는 물론 참선,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방편을 닦는 불자들도 염불의 깊은 뜻을 터득해 이생에 윤회를 벗어나 불퇴전지(不退轉地)에 오르는 기연(機緣)을 만날 수 있도록 편집했다. 저자는 "한국불교가 조계종을 중심으로 선종(禪宗)을 표방하다 보니 염불 간경 주력 등 화두참선 이외의 수행방편은 홀대 받기에 이르른 것이 사실"이라며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지나치게 표방한 가풍은 경전과 조사어록을 소홀히 하다보니 스스로의 수행(自燈明)을 비춰볼 법등명(法燈明)이 외면당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결국은 선(禪)과 교(敎), 이(理)와 사(事)가 분리된 신행형태가 만연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자는 "이런 현상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날 경전도 공부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는 '한국불교의 위기'에 이르게 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한 원인이 된 것 같다"며 "하지만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이 위태로운 오늘날에도 묵묵히 염불(念佛)하며 간경(看經)하는 신심 깊은 불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불교를 중흥시킬 주역이 틀림없다"며 "수시로 독송하고 외우면 지혜와 공덕을 함께 갖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엮은이 상이암(上耳庵)은?

전북 임실 상이암은 조계종 제 24교구 본사인 선운사 말사이다. 875년(헌강왕 1) 도선국사가 창건했고, 1394년(태조 3) 각여 선사가 중수했다. 태조 이성계가 등극 전 이곳서 치성을 드리니 하늘서 "앞으로 왕이 되리라."는 소리가 들렸다해 절 이름을 상이암으로 고쳤다고 한다. 1894년 동학혁명으로 불탄 것을 1909년 대원 선사가 중건한 뒤 의병장 이석용이 이 절을 근거지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왜병들에 의해 다시 소실됐다가 그 뒤 중건됐지만, 6·25 때 다시 소각됐다. 현재의 전각은 1958년 11월 상이암 재건위원들이 세웠다. 유물로는 혜월(慧月)과 두곡(杜谷)의 부도 2기가 전북문화재자료 제124호와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50호로 각각 지정됐다.

책속의 밑줄 긋기

"오직 이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를 마음속에 품어서 늘 잃지 말아야 한다. 생각 생각마다 늘 앞에 나타나고,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일이 없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안락할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병고(病苦)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살았을 때에도 이렇게 염불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염불하여, 이와 같이 한 생각이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이른바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 없으면 손가락 튕길 수고도 없이 서방극락 세계에 가느니라.(육조혜능대사)"

"서산대사께서는 선종의 대종장이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 법문은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대사께서는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생각하여 잊지 말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똑똑히 불러 산란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마음과 입이 서로 합치되는 것이 염불(念佛)이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서산대사를 비롯한 역대 고승들이 말법시대에 가장 쉽고 빠른 생사해탈의 길로 천명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살아서는 안심(安心)과 행복을 얻고, 죽어서는 왕생극락하여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하고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살다보면 기도나 염불 이외에 할 것 없는 시간 무수히 찾아와"



불보살 영험이야기

이수경 편저
운주사 펴냄
1만 5천원

불교는 흔히 어떤 절대자나 신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를 깨닫는 철저한 자기 수행의 종교라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기만 할까? 불교에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를 향한 바람이나 기도가 없을까? 대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이다.

불교가 자기 안에 내재된 불성을 계발해 깨달음에 이르는 종교인 건 분명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에 도달하지 못할 때 이미 깨달음에 이른 불보살의 도움을 받는 기도를 당연하게 인정한다.

깨달음뿐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어려움들이나 바라는 일들을 해결하고 싶을 때가 무수히 많다. 이를테면 일반적인 의지로 극복하기 어려운 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재난이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학업이나 사업을 성취하고 싶을 때면 불보살님들께 기도함으로써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간절한 기도로 불보살님들의 가피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불교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기도로써 불보살의 영험을 체험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책은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전해오는 대표적인 영험담과 수행 이야기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아울러, 옛 스님들과 선사들의 일화들을 모아 한 장(9장)을 엮었는데, 이는 영험담과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 영험담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논리를 뛰어 넘는 이야기라는 공통점과 함께, 영험담류와 구별되는 또다른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모두 아홉 꼭지로 구성된 이 책의 전반부는 여러 보살과 부처님에게 기도하여 가피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먼저 관세음보살 이야기를 시작으로 문수, 보현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나한 이야기 등으로 분류 소개했으며, 후반부는 윤회와 인과응보에 관한 여러 교훈적인 이야기, 그리고 법화경 신행 이야기와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돈에 얽힌 고사들을 전한다. 마지막으로는 불교의 궁극 목적에 해당하는 '대도무문, 대자유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역사 속에서 수행 경지가 높은 도인들의 높은 수행력과 신기한 영험들을 수록함으로써 불보살에게 기도하는 마지막 목적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넌지시 제시한다.

이 책의 서문서 저자는 말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염불이나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어지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살다보면 기도나 염불 이외에는 할 것이 전혀 없어지는 실로 무력하기 그지없는 시간이 무수히 찾아옵니다. … 불교공부와 염불을 병행하십시오. 염불이 지극해지고 지극해지면 드디어는 부사의하고 불가해한 세계의 문이 열리는 때가 찾아옵니다."

불보살 가피 이적 소개
한중일 대표적 영험담
선사들 수행일화도 엮어
법화경 관련 신행이야기도

저자의 말대로 세상일이든 수행이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될 상황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듯 삶이 어렵고 소원 성취를 원할 때, 수행이 더 깊어지길 바랄 때 불보살에게 간절히 기도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원 성취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불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과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편저자 이수경은?

1948년 경주서 태어났다. 20살 무렵의 어느 날 새벽에 부친으로부터 부처님의 정각 이야기를 듣고 발심했다. 이후 〈금강경〉 공부를 시작으로 여러 절을 돌아다니며 선지식들로부터 참학한 후에, 월산 스님으로부터 참선을 지도받고 공부하였다.

저서로는 〈화두공부의 문을 열다〉 〈화두의 융합과 초점〉 〈화두선 요결〉 〈무문관의 새로운 해석〉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영남 범음. 범패 제5기 학인모집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실용의식 : 천도재 및 49재의식, 실전강의, 각 사물 등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개강일시 :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2층)
◆문 의 처 : 010-5065-5690

근 화 학 당

◆역학교실 : ① 교양반 ② 전문반
◆강 사 : 추송 ◆수강료 : 월 10만원
◆문 의 처 : 010-8948-7948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7시까지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 역학을 집중 지도함

영남범음 범패원장 제 봉
근화학당 역학원장 추 송 합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易學강좌

논리로 푸는 사주학 과학역학 '석하명리'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음양오행과 사주학의 모든 이론에 대한 원리를 밝히는 과학역학 '석하명리'
성공과 실패의 10주년 패턴 '석하리듬'

구 분	요 일	시 간	개 강
초급(주간)	매주 (火)	15:00 ~ 17: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 (火)	19:00 ~ 21: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 (水)	19:00 ~ 21:00	10월 21일
중급(주간)	매주 (木)	10:00 ~ 12:00	10월 22일

■ 기간 14주 과정 / 수강료 20만원
■ 교 수 진 : 석하 소재학 박사, 석원 박성희 박사, 심원 남상용 교수, 교원 설운스님, 강세명 교수
■ 강의장소 : 선정릉역 2번출구(지하철 9호선 / 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 자격증 과정 겸비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명리진로적성 상담사/현대명리교육 상담사
■ 하원정미래학회 석하명리 동문자격(서울 29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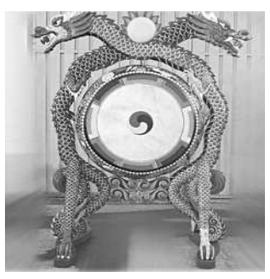
· 성격특성, 진로적성, 성공과 실패의 시기 분석

서울벤처대학원 FCA
• 문의 : ☎ 02)3443-4984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민족 주체성 상징으로 원효 스님 부각”

손지혜 박사, 〈불교평론〉 가을호서 ‘원효’ 인식 논문 발표

1910년대부터 재조명
일본불교 반발 · 동경 작용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 원효 스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숭유억불 시간 동안 저서 대부분이 소실되고 교학 조차 전승되기 어려웠다. 그런 원효 스님이 왜 근대기에 들어서며 다시 주목받게 됐을까.

손지혜 박사(일본 오타니대 역사학과 조교)가 〈불교평론〉 가을호에 기고한 ‘근대기 한국불교는 왜 원효에 주목했는가’는 원효 스님이 부각된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핀다.

손 박사는 근대기 조선불교 정체성의 문제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강하게 의식됐으며 이런 인식 위에 부각된 측면이 크다고 밝힌다. 특히 불교개혁론의 대두 등으로 불교도들은 적극 세속으로 뛰어들어 사회적 역할을 확장했으며 이로 인해 원효 스님이 한층 각광받게 됐다고 밝힌다.

손 박사는 이어 원효 스님 관련 자료의 발견과 집성도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1910년대부터 한일 양국 학자들에 의해 이전까지 40여 부로만 알려진 원효 스님의 저술이 90여 부로 집계된다.

손 박사는 “원효 저술의 필사본이 일본에서 진중하게 전해지는 것을 보고 국내 지식인들 사이에도 반성이 일었다. 특히 조동종대학 유학생 정황진이 1918년 〈대성화쟁국사원효저술일람표〉를 발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점차 원효 스님은 ‘불교사상가, 대저술가’로 자리잡게 된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이어 “원효 스님의 이러한 고정적인 이미지에는 적지 않은 민족의식이 개입돼있다”며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이 민족영웅과 개혁자, 통불교론자로서 표상화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원효 만을 잘라내 한국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원효 스님을 한국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배경에 일본에 대한 저항감과 선진불교국으로 부상하던 일본불교계에 대한 동경, 중국불교 아류설에 대한 반발, 불교의 과거 위상 회복 염원 등을 들었다.

손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원효 인식의 변화와 배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효는 종래 불교계 인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이지만, 특정 주석서에 대한 연구, 혹은 생애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을 뿐 원효라는 인물상의 역사적 정착 과정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 박사는 근대기 원효 스님이 표상화된 사례를 △민족영웅으로 부상 △불교계 개혁의 모델 △통불교의 실현자 △호국의 승려 △선교(禪敎) 통합의 종조상 등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손 박사는 또 “한국에서는 중국 화엄과는 다른 독자 화엄학을 세운 인물로 각광을 받게 됐다”며 “특히 196~70년대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코드인 국민총화와 맞물려 반공, 국론 단합을 외치는데 활용됐다. 이 같은 경향은 1980년대 삼국통일의 이데올로기로 원효 스님의 회삼귀일이 활용됐으며 이후 남북통일의 철학적 근거로 까지 진화한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효창공원에 세워진 원효 동상을 올려다 볼때 호국승군단이 창설되던 유신정권기 왜 저 동상이 세워졌을까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현 불교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호국불교론’ ‘조계종 정체성과 종조론’ ‘민족주의 불교론’ 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효 스님 영정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신행체계와 재가불자 신행’ 조명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불광교육원 문수당에서 ‘불교의 신행체계와 재가불자의 신행론’을 주제로 제25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불광창립 4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연찬회에는 △황순일 동국대 교수의 ‘초기경전을 통해 본 재가불자 신행론’,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대승경전을 통래 본 재가불자 신행론’, △양승규 티벳대장경 연구원 전임연구원의 ‘티베트불교의 신행체계와 재가신행론’, △김진무 절강사회과학원 객원교수의 ‘선과 중국의 재가불자 신행론’,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현대사회와 재가불자 신행론’을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술대회

중앙승가대 대학원(대학원장 보각)은 10월 17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언 · 다라니 실담의 전래와 변용’을 주제로 2015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진언 · 다라니 실담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종석 스님이 발표하며 이정수 동국대 교수가 논평한다.

2부행사에서는 △‘범자진언의 지역별 전개 유형’에 대해 허일범 진각대 교수가 발표하며 정성준 동국대 교수가 논평한다. 이어 △남권희 경북대 교수의 ‘한국의 陀羅尼 간행과 유통에 대한 서지적 연구’, △엄기표 단국대 교수의 ‘와당에 수록된 실담자형 연구’ 등 발표가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묘엄불교문화재단, 제3회 불교문화상 공모

수원 봉녕사 회주 묘엄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기 위한 묘엄불교문화재단이 제3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를 공모한다.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용환)은 10월 31일까지 제3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를 공모한다. 개인 또는 단체 2곳으로 불교문화, 실천, 학술, 교육, 포교, 수행, 예술 등 각분야에서 활동한 이들이 대상이다.

묘엄불교문화재단은 한국 비구니계의 큰 어른인 묘엄 스님이 2011년 12월 입적하며 남긴 유지를 실천하기 위해 2012년 8월 봉녕사에서 창립됐다. 제1회 묘엄불교문화상 수상자로는 동아시아 여성 불교연구가 조승미 교수, 찬불 작곡가 이찬우 선생이 선정됐으며, 제2회 수상자로는 ‘좋은벗 풍경소리’와 법보신문이 선정된 바 있다.

접수는 온라인 묘엄불교문화재단 다음 카페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재단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된다. 상금은 각 1000만원으로 시상식은 묘엄 스님 추모다례일에 거행된다.(051)510-2076

노덕현 기자

〈불교학리뷰〉 18호 원고모집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박창환)는 10월 20일까지 〈불교학리뷰〉 18호 원고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논문(불교학 전반 및 문헌학 분야), 연구사 및 연구현황, 서평, 역주, 번역, 국내외 학술행사 참관기 등 다양하다.

원고분량은 논문은 본문과 각주를 포함해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하며 초과시에는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원고 작성방법은 시카고 매뉴얼의 저자-연도 표기 방식을 준수한다. 이전 간행물은 불교문화연구소 홈페이지(gcbs. geumgang. ac.kr/sub04_1)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정토학회 〈정토학연구〉 제21집 원고모집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규탁)는 10월 31일까지 〈정토학연구〉 제24집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모집 분야는 정토, 신앙, 의례, 문화 중심의 불교관련으로 A4용지 15~18매에 영문초록과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10개, 영문 키워드 10개, 참고문헌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학회지 수록여부는 학회의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게재 여부는 추후에 통보된다. 제출된 원고와 디스켓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의 분량 및 투고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토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02)581-3137

노덕현 기자

가을맞이 불교무형문화재 시연행사 ‘풍성’

10월 10일 진관사 수륙재, 15일 아랫녘 수륙재 등 예정

불교 무형문화재가 가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풍성하게 펼쳐진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10월부터 열리는 가운데 불교무형문화재가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 · 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10월에는 총 24종목 27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돼 있다.

먼저 제27호 승무(이애주, 25일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를 시작으로 제126호 진관사 수륙재(10~11일, 서울 진관사), 제127호 아랫녘 수륙재(15~16일, 창원 백운사)가 거행된다. 제108호 목조각(박찬수 23일~11월 1일 산청 목조각장전수회관), 제120호 석장(이의상, 26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선보이는 공예미술도 직접 볼 수 있다.

이 밖에 국가의례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 사직대제(4일 종로구 사직단)의 장엄한 무대를 시작으로 △제12호 진주검무(9일 진주성 남강 유등축제 특설무대) △제11-4호 강릉농악(10일 강릉농악전수회관)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24일 사천시 남양동 임내숲) 등 멋과 흥이 넘치는 무대가 마련된다.


진관사 수륙재 시연모습

그리고 △제5호 판소리(신영희, 16일 경복궁 수정전 · 성창순, 17일 경복궁 수정전 · 박정자, 21일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 △제16호 거문고산조(김영재, 29일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 △제20호 대금정악(조창훈, 18일 경복궁 수정전)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문재숙, 9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제45호 대금산조(김동표, 30일 국립부산국악원) 등 구성진 우리 가락의 향연이 펼쳐진다. (02)3011-2166)

노덕현 기자

불교학술원, 표충사 고문헌 전면 조사

9월 16일 고문헌 270여점 아카이브 구축 MOU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9월 16일 밀양 표충사와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 · 촬영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2년부터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진행 중인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 일환으로 표충사가 소장한 270여 점의 고문헌을 종합 조사하는 첫 출발이다.

ABC사업은 한국불교가 전통문화유산으로 남긴 다양한 기록물에 대한 조사 · 촬영, 집성과 역주작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이다. 불교 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 및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확립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동국대 ABC사업단 집성팀은 2012년 담양 용흥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여 곳의 사찰과 기관 등의 불교 고문헌을 조사 · 촬영하였다. 2015년에는 서울시 은평구 심택사의 〈묘법연화경〉, 경기도 고양시 대성암의 〈묘법연화경요해〉 등의 보물급 문화재를 발굴, 조사하여 불교학과 역사 · 문화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 관련 문헌 조사를 시작해 근현대불교에 있어서 선사의 위상을 정립하는 기초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정승석 불교학술원장과 도훈 스님이 MOU를 맺고 있다.

밀양 표충사는 1839년 밀양 영축산에 있던 표충사(表忠祠)를 이전, 중창하며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 진영을 봉안한 곳이다. 표충사 소장 고문헌 중에는 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기록한 글을 모은 〈분충서난록〉을 비롯해 〈표충사삼현대사충훈대략〉, 〈표충사상사문서등록〉 등이다.

서지 자료와 함께 50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촬영 결과물은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에서 공개된다.

노덕현 기자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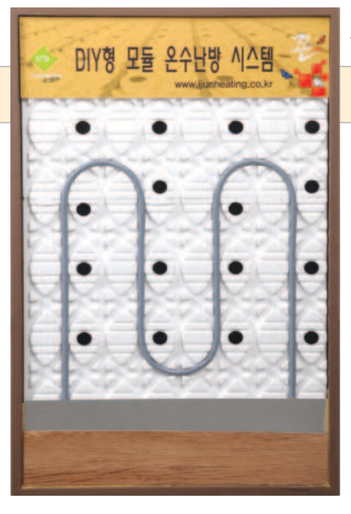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안산 : 010-2487-3393 대구 : 010-3821-4849 서산 : 010-7301-5854
화성 : 010-3168-9250

멸종위기동물 생존 둘러싸고 '충돌'

나로파대학 vs 동물보호단체
캠퍼스 내 잔디 훼손 '골머리'
동물 이주위한 계획 허가 요청
반대캠페인 · 서명운동 열려

美콜로라도 볼더(Boulder)에서 야생동물 프레리도그(prairie dog)가 불교대학의 생명윤리를 가늠하는 척도로 등장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잡고 있다.

볼더에 위치한 불교계 나로파(Naropa)대학이 캠퍼스 곳곳을 훼손하고 있는 프레리도그에 대한 '필살의 제어(lethal control)' 계획을 세우고 볼더 시당국에 허가를 요청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불살생(不殺生)이라는 부처님 대의를 거스르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프레리도그는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등지에서 야생하는 '땅다람쥐' 일종으로 멸종위기동물로 분류돼 있다. 보통 1백여 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 넓고 평평한 곳에 땅굴을 파고 사는데, 이 주거습성 때문에 나로파대학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캠퍼스에 잔디를 조성해 놓았는데 프레리도그가 파놓고, 보수하더라도 다시 훼손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한 나로파대학 리글러 차드(Rigler Charged) 대변인은 "프레리도그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캠퍼스 잔디 곳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프레리도그를 다른 서식지로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동물보호단체인 'WildLands Defense'의 디나 메이어(Deanna Meyer) 대변인은



볼더에 위치한 불교계 나로파(Naropa)대학이 시 당국에 캠퍼스 곳곳을 훼손하고 있는 프레리도그 계획 허가를 요청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BOULDER NEWS

美나로파대, '프레리도그' 막기 위한 필살책 강구
동물보호단체 "불살생 행위와 다름없어" 반발

"지난 4년간 대학 측은 캠퍼스 내 프레리도그 이주를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 무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시의회에 허가를 요청한 '필살의 제어' 계획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Boulder urban wildlife Conservation'의 발 메디슨(Val Matheson) 대변인은 "현재 나로파대학의 '필살의 제어' 계획은 볼더 시의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우리는 시의회의 불허가 조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aily Caller'에 따르면 볼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를 위해 나로파대학 안팎에서 반대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Care2Petitions'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반대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지금까지 17만여 명이 '나로파대학의 요청이 수락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참했다. 볼더 지역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대서명 캠페인에 날인된 동참자의 뜻을 모아 볼더 시의회에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Care2Petitions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반대서명 캠페인은 "엄마, 나로파대학이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해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서로를 껴안고 있는 어미와 새끼 프레리도그의 사진을 게재해 네티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발 메디슨 대변인은 "우리는 나로파대학 캠퍼스가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당연히 프레리도그에게도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캠페인은 공생 · 공업이라는 불교적 가치가 볼드 지역에서 실현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나 메이어 대변인도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존재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어떻게 내가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다른 존재에게 가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는 나로파대학 내 프레리도그의 생존을 결정해야 하고 또 그렇게 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oulder Daily Camera'는 "지난 4년간 10만 달러(약 1억 2천만 원) 대학 예산을 지출했지만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어 '필살의 제어' 계획을 세웠다"는 리글러 차드(Rigler Charged)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고, "볼드 시의회가 나로파대학 요청과 동물보호단체 주장 중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나로파대학은 티베트 수행자였던 쵸감 트룽파(Ch?gyam Trungpa) 스님에 의해 1974년 설립됐다. 달라이 라마가 서방에 알려지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는 티베트 불교를 모태로 출발한 나로파대학에 앨런 긴스버그 등 저명한 학자들이 포진하며 미국 불교 성장을 주도했다. 현재에는 '불교에서 영감을', '학생 중심의 예술 대학',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성장', '지적 개발과 실천적 명상' 등을 추구하며 11개 학사, 15개 석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규대학으로 발돋움 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환생 승려'가 살생무기 홍보를?

美 액션배우 스티븐 시걸, 親군사 행보에 '눈살'

티벳 불교의 열렬한 신자로 알려진 스티븐 시걸(Steven Seagal)의 친(親)정치 · 군사 행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에도 스티븐 시걸은 살생 군사무기 홍보뿐만 아니라 폭력물에 출연하며 전 세계 불자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은 9월 24일 "스티븐 시걸이 최근 러시아 대통령 푸틴(Putin) 및 그 주변인들과 함께 무술, 각종 격투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로 친분을 쌓아왔다"며 "스티븐이 공공연한 툴쿠(tulku, 티벳 불교에서 이미 깨달았으나 중생구제를 위해 인간세계에 환생한 승려를 일컫는 말)로 인정되어온 바, 이 사태에 대한 티벳 불교 지도층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독실한 불자라고 스스로 자부해 온 스티븐 시걸이 정치인들과 함께 격투기를 즐기며, 때로 군무기 전시관에도 모습을 드러낸 점을 꼬집은 것이다.

'The Guardian'에 따르면 스티븐은 9월 말경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초청으로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 무기 전시관 관람 일정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The Guardian'은 "간과해서 안 될 점은 장시간동안 군무기 공장을 둘러보는 스티븐의 모습"이라며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러시아 군무기 회사 광고에 출연해왔다. 또한 러시아 무기 산업체서 공식 초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각종 군 행사마다 모습을 드러내왔다"고 힐난했다.


스티븐 시걸(Steven Seagal)은 독실한 불교신자로 알려졌으나, 최근 군사무기홍보행사에 자리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huffingtonpost

이는 살생을 금해야 하는 불자가 정치적 친분을 위해 살생 군사무기를 홍보하고 나선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The Guardian'는 "한 액션배우가 '툴쿠'이자 동시에 러시아 무기 공장의 '얼굴'이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우리는 그의 이해타산적 행동에 대해 달라이라마의 해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아름 기자

절-교회 '이웃주민' 될 수 있을까

미얀마 파안, 사원 건축 문제로 교회와 갈등

미얀마 카렌(Karen) 주의 파안(Hpa-an)에서 종교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Karen News'는 "교회와 나란히 불교사원이 건축되고 있어 자칫 종교 갈등으로 이어질까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파안의 메자잉(Mezaing) 지역에 들어선 침례교회 바로 옆에 불교 사원이 세워지고 있다. 유 투 자나(U Thu Zana) 스님이 침례교회와 상의 없이 지난 8월 15일부터 '미아잉 기 누(Myaing Gyi Ngu)' 사원 건축을 강행하고 있다.

쏘 마이클(Saw Michael) 담임목사는 'Karen News'와 인터뷰서 "미얀마 정서에서 교회와 사원이 나란히 서 있다면 종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사원 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유 투 자나 스님이 응하지 않고 있어 주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침례교회는 95년 전 1.52에이커(약 4,900㎡) 규모로 세워졌고, 2014년 지역 불교계 반발에도 불구 '파안 토지정비사업'을 통해 행정부 지원을 받아 1.52에이커 전체를 교회 재산으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주 정부 측은 "현재 카렌주 불교지도자들에게 파안의 상황을 올바로 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불교지도자의 공감을 얻는다면, 유 투 자나 스님과 대화 자리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유 투 자나(U Thu Zana) 스님이 메자인 지역 침례교회 바로 옆에 '미아잉 기 누(Myaing Gyi Ngu)' 사원을 짓고 있다.

그러나 'Karen News'에 따르면 주 정부 불교지도자들은 '종교 갈등은 안 된다'는 원칙만을 내세울 뿐 유 투 자나 스님 설득에는 나서지 않아 타협이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10월 초 마련될 공청회도 유 투 자나 스님이 거부한다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Karen News'는 "현재 13.5피트 규모 탑이 거의 완성됐고 이어 본격적인 사원 건축이 시작된다"며 "불교사원과 교회가 나란히 있는 미얀마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獨 드레스덴, 첫 불교공원묘원 들어서…

독일 베트남계 불교센터, 4년간 시당국 설득해
2천여 평방미터 대지에 '10톤 규모' 불상 조성

독일 드레스덴에 불교공원묘원이 들어섰다. 드레스덴서 활동 중인 베트남 불교센터가 베트남계 이주민들의 원력을 모아 추진했던 '불교공원묘원'이 4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Germany News'는 9월 28일 "베트남계 불교공동체가 독일 이주 40년 만에 사상 첫 불교공원묘원을 드레스덴에 조성하고 개원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드레스덴 시당국은 유대교, 가톨릭, 복음주의 기독교 등 독일 주류 종교와 비교해 불교의 사회적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교공원묘원'을 불허해 왔다.

"불교공원묘원은 이미 조성됐어야 했다"고 전제한 베트남불교센터 딩 링거(Ding Linger) 대변인은 "베트남계 이주민이 드레스덴에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40년 전"이라며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베트남계 이주민은 10만여 명까지 늘어났고 이중 불교도는 85%에 이른다"고 말했다.

'Germany News'에 따르면 베트남계 이주민은 1세대서 2세대를 거치며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 대부분 '내가 누구인가' '생사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질문에 스스로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독일 베트남계 불교공동체가 드레스덴에 독일 이주 40년 사상 첫 불교공원묘원을 개원했다.

이에 대해 "첫 각성은 동독 붕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 링거 대변인은 "이때부터 자신의 유산을 되돌아보고 가치관을 정립해 나갔다. 특히 7천여 명 베트남계 이주민이 살고 있는 드레스덴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고 자연스럽게 '불교공원묘원' 개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독일에 살고 있는 모든 불교도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은 불교공원묘원은 대지 2천여 평방미터에 다양한 불교 상징물로 장엄됐다. 이중 단연 돋보이는 상징물은 8개의 법륜을 배경으로 봉안된 10톤 규모 불상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불교 상징인 만(卍) 자는 불교공원묘원의 장엄에 사용하지 않았다. 나치 상징과 혼동될 수 있다는 베트남 불교센터 측 판단이다.

한편 "드레스덴은 독일서 대규모 극우집회가 열리는 도시 중 한 곳"이라고 지적한 'Germany News'는 "불교공원묘원이 인종주의 · 극우주의가 팽배한 드레스덴에 관용의 미덕을 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는 인종과 사상의 벽을 넘어 서로 다른 가치관이 소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화엄경은?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이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탁악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겐 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잇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란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승하여 부처님으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것이다.

괴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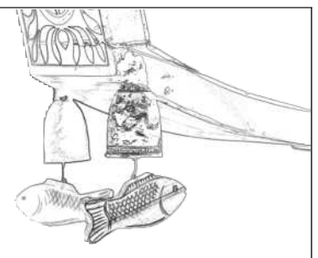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을 때리는 일은 자신을 때리는 일이다. 원수와 원수는 서로 만나니 남을 비방하는 일은 바로 스스로를 비방하는 일이요, 남에게 성내는 일은 자신에게 성내는 일이다.

- 법집요송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약사여래불사 권선문

약사여래 부처님은 왜 해야 하는가? 약사여래 부처님은 모든 장애와 두려움과 곤란을 없애주시고 모든 나쁜 질병과 고통을 없애주시며 모든 좋은 일을 소원성취시켜주시는 신비한 부처님이시다.
성원사 (제주시 도련길 66)
064-783-2092, 010-9267-2092,
011-699-2616
우체국 510446-01-000934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길 명 상

(학인 및 수련생 모집)
- 쉽고 알차게 배우는 경전공부
- 기(氣),명상수련
(우울증,케어중심)
대구시 아양교 근교/팔공산 용수동
010-7200-0108
010-7199-0118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미륵불 (대형)

석가모니 불상
알림
010-4630-8005

인 연 명 리

삶은 인연생, 인연멸입니다!
· 영가 찾고 보는 법 /
매화역수, 속성반 모집
· 명리기초반 (10월 개강)
· 명리 통변반 (현재 강의 중)
* 지금 내앞에 있는 인연이
가장 소중합니다!!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명리첩경의 저자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
리공부와 수련 하실 분
010-3054-3345
전화 상담환영

문하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강사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대구길상사 주지
- 주소 : 대구중구대봉2동 744-21
- 문의 : 삼소정 서예문인화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대전, 60-70대,
부부환영)
010-5209-7420

비구니 스님 구함

비구 노스님 시봉하면서
암자 관리할 40대,50대
비구니스님 구함
차후에 다 물려줌
010-8598-4193
경북 상주

49재, 천도재, 점안식

영혼천도를 잘하는 스님
이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작법무,회심곡,살풀이)
최고의 의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010-5482-2091

부전스님 모십니다

(작명,역학,택일 가능하신 분)
경북 영주
010-2633-2418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불교무용 특별지도

바라춤,극락무,나비춤,
살풀이,법고,승무 등
30년 경험 선생 직접지도
수강료 : 십만원/월(선착순)
010-3711-5072
부산 서면역 부근 반야선원

광고달력 주문

단일종류, 광고배포용
1부 1500원, 전화접수
경기 오산시 오산로 62번길 8
031-373-1120 (오후 6~8)
등산 포교선원 다르마 사업부

비법 중의 비법

-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법왕불교대학 관불사 안내

- 불교법사과 : 6개 속성과정 - 불교사미과 : 1년 종합과정
- 유발승려과 : 1년 종합과정 - 불교승려과 : 2년 종합과정

큰스님 특별친견
-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 - 부부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 매매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장산로 13길 82
연락처 : 02)963-0607 / H.P : 010-3329-113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전문사찰
화 엄 선 원
타로 무료 수강생 모집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중생의 목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음식을 베풀면
이 두 가지 인연으로 그 수명은 길어진다네.

- 금강명최승왕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벽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1,650평
- 가액 : 10억 5천인수(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경주시 급 양도 사찰
- 청정계곡 접 토지 약 6400㎡
- 기와단청법당.단청산신각.지장전.요사채
- 양도금액 : 9억(융자 5억 있음)
- 실인수가액 4억. 주변산세 좋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54-283-6293
010-4606-7253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부근
- 대지 324평, 법당 34평
- 삼성각 6평(목조)
- 요사채 1, 2층 100평(목조)
- 사용할 수 있는 땅 1,200평
- 가액 : 20억

010-4069-772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대지:50평 ◎ 종교용지:220평
◎ 법당:25평 ◎ 법당:50평, 요사:60평
◎ 요사:30평 ◎ 차량진입
◎ 양도:5억원 ◎ 양도: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단양시토굴 암자 급 양도
* 요사채 80㎡, 토지 4500㎡. 과실수 있음
* 뒷편은 산이고 전망좋은 토굴겸암자
* 양도가 : 2억 7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송추계곡 근방
- 2층 건물 중 2층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백만원
- 시설비 : 추후 결정

010-8725-3196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 가액 : 6억 8천만원(1억8천 융자)

010-6898-9114

아늑한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 백운산 자락 (진월IC 20분거리)
- 대지 200평 / 차량진입 가능 건물 10평(ALC건축)
- 전기/지하수 및 옹달샘/정화조 구축
- 주변 인가 없고 전망 최고
- 더 가꾸고 싶은 욕심이 나서 처리함
- 가액 : 4천5백 만원(조절가능)

010-6633-268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사천시내 5분거리
- 대지 175평, 법당 13평
- 요사채,방2개,주방1,거실
- 양도가 : 7천 8백만원 시설비 500만원

055-833-5769
010-8503-5769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논산시
- 목조법당 42㎡, 목조 공양간 40㎡, 스님실 8㎡ 요사 50㎡, 토지 400㎡
- 논산 IC 부근 마을 주변 조용하고 깨끗함
- 가액 : 1억 2천만원 (3천 4백만원 융자있음)

010-9918-7937

사 찰 안 내
- 유동인구 많은 안산시내 위치좋은 역세권 큰길 대로변,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4층 전체(엘리베이터, 옥상포함), 실평수 60평
- 법당, 요사채, 상담실, 주방, 욕실, 다용도 주거겸용 쾌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90만원 시설비 2,800(가격절충 가능)
- 절살림 준비 잘되어있어 바로 여법하게 법회가능
- 단골 신도 포교하기 유리한 최적지

010-5913-7239 일연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농가주택(토굴)
- 위치 : 경기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 건물 2동
- 가액 : 4천 5백만원
- 문중땅이며 건물만
- 건물 등기 있음

010-9849-7727
덕산 합장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21억

010-9567-08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대웅전, 산신각, 영각, 문화재 3층석탑, 요사체 전체 12000평
- 보증금 1억 3천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2262-0001
010-2262-565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하장실 등등 건물 총 13동
- 대형버스주차장,소형차주차장 등
- 가액 : 3억 9천만원

010-4628-5699
스님 건강 문제로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같은 3층(60평)
- 종무실 1, 방 2, 화장실 2, 욕실 1, 후원(상태 깨끗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99만원 (관리비 없음) 시설비 3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2)993-0399
010-5205-0118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시 중구
- 한옥 독채, 토굴 세놓음
- 인법당(후불탱화,신중탱화, 법당종, 인등, 관세음보살, 앰프 시설)
- 마당에 산신, 용신, 2자반, 창고 2개
- 보증금 500만원, 월세35만 시설, 비품대 1200만원

010-4056-5677

아담한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 시내에서 7분 거리
- 지목 : 대지 75평, 전 85평
- 전체 160평
- 마당까지 차진입
- 법당,방3칸,큰거실,화장실2개 산신각3평
- 한꺼번에 50명 대중공양 가능
- 가액 : 7천만원

010-4503-3503

큰사찰 및 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경치 좋은곳
- 1만평 33,000제곱미터 평당 10만원
- 1만평 개인분할 등기 진행중
- 답사 후 결정 주인 직접
- 현재 사찰 운영 중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조립식건물
- 주차장 넓음
- 양산시내 및 고속도로 지하철 25분거리 부산, 울산, 김해 1시간거리

010-3879-2544

사찰 싸게(급)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화왕산로 (화왕산 군립공원입구) IC에서 8분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25평, 부지532평(종교부지,3필지)
- 요사채(50평) 칠성각,산신각,석탑, 심야보일러,창고,텃밭 경작
- 산밑에 도로인접(뒷산, 소나무울창)150m 암반수및상수도
- 양도금액 : 3억5천(7천융자포함)꼭하실분만 연락바람

연락처 : 010-3149-4478
(스님건강상 010-8664-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지하철 역세권 도보 3분거리
- 교통 주차좋음 125평, 1, 2층 슬라브 3층 조립식
- 가액 : 2억 7천 (대출 1억 2천 승계가능) 안고 실구입 1억 5천만 (협의후 절충해 드림)

010-9150-8633

암 자 안 내
- 위치 : 김천시 부항면 대야리 786
- 대지 371평 건평 31평(인법당 10평)
- 목조 건물, 요사 25평
- 일체 시설은 최상임 일체 양도함
- 가액 : 1억 5천만원

010-9402-9306

건 물 안 내
- 위치 : 충주시 좋은 위치(명당자리)
- 건물 : 300평(지하 1층, 지상 3층, 각층 75평)
- 대지: 130평
- 3층 : 잘 꾸며진 포교원
- 가액 : 7억 5천만원 (융자 2억 7천만원) (각 층 임대시 월 임대료 수입 300만원 가능)
-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람

043)845-8123

사 찰 안 내
60년 전통의 경기인근 충북의 사설사암 비영리단체등록 수행도량
- 서울에서 1시간거리의 조용한 복숭아 과수원의 전원마을
- 종교용지~720평 (별도 국유지100평 점유사용)
- 대웅전~56평의 전통 3포양식의 닷집 단청 삼성각,종 각 5층 석탑.관세음 보살 석상 다보탑,석가탑,석등.포대화상. 요사채 2동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320 (다음 지도검색 에서 로드뷰 로 확인 하시길)
- 가액: 8억 5천 만원

010-6372-8968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신정동
- 6층 건물중 2층 90평
- 법당, 요사채, 공양간, 친견실
- 시설 특 A, 시설비 답사후 절충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010-5865-239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건물 : 2층 23평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223-4879

포교원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2대가능, 터는도깨비터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2개월동안 깨끗이 수리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놓여있음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4646-363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4차선도로
- 4층건물중 3층, 62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 모든시설비 2천만원
- 특징 : 포교당 최고의위치
- 현재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716-3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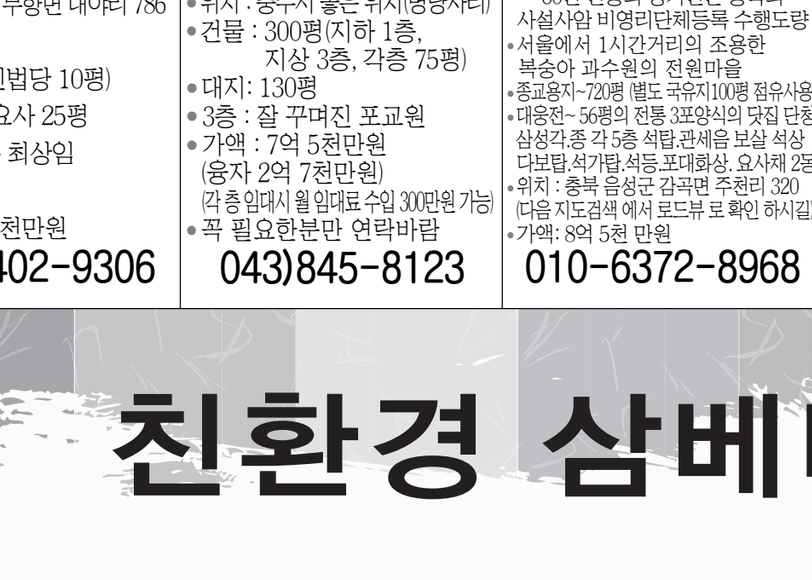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부시장 경남 양산시 중부동 429-7(2층)
- 평수 : 80평
- 대법당 삼존불 탱화
- 실내화장실 3개, 부엌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9945-203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5억5천만원

(대출 2억5천 안고 양도금액 3억)
010-5019-5385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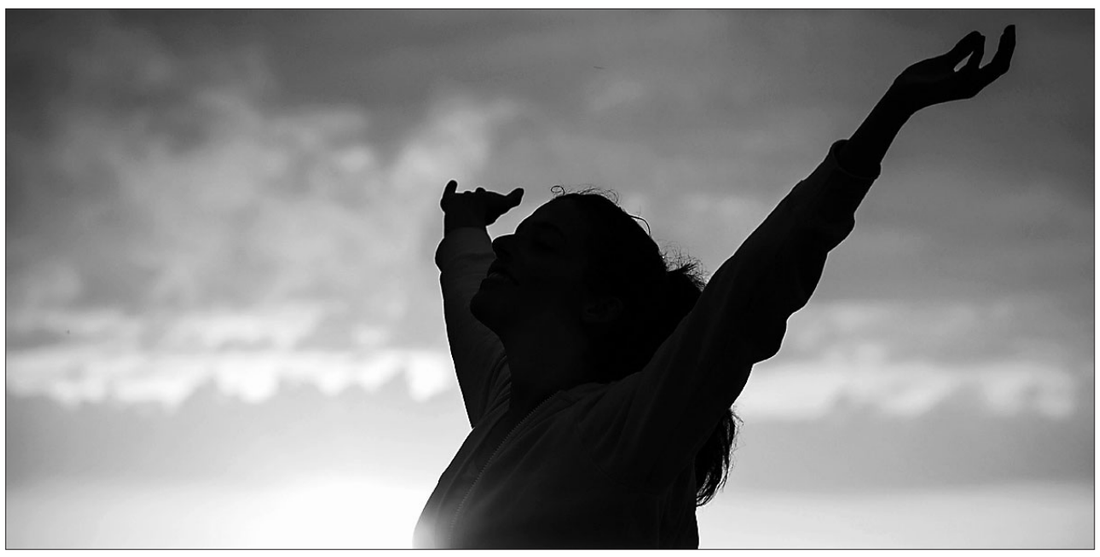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마음 다이어트

〈10〉 자신의 행동 패턴과 지혜 만들기

김대선 (명상 지도자)

자기 적성 찾아내 '즐거이' 배우고 일하라



나의 성향은 무엇인가

성격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주변인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평가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혈액형별 특성을 통해 '그래, 누구는 B형인데 그런 성격이 있지?' 하며 A형은 어떤지, AB형은 어떤지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한다. 서양의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심리 분석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장, 덕장, 용장으로 영웅을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드라마 정도전에서는 이성계를 덕장의 모습 위주로 표현하고, 전쟁 장면에서는 용장으로 표현한다. 최영은 전장과 관직에서 모두 용장으로 그려 이인임이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장면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영웅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순신 장군은 학익진과 여러 전술을 통해 무패 행진의 지장으로 나타난다. 전쟁이 아닐 때는 백성을 사랑하는 덕장임을 〈난중일기〉에서 알 수 있다. 원균은 시기 질투를 하고 패전을 거듭하여 욕을 많이 먹지만 용장으로 알려져 있다.

명상에서는 지혜를 의미하는 지장을 상단형,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덕장을 중단형, 탱크와 같은 저돌적 행동을 의미하는 용장은 하단형이라 한다.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은 어떤 식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했는지 찾아볼 수 있다. 상단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따져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는 성향이다.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기를 즐긴다. 생각 없이 먼저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기 좋아할 수 있다. 단점은 자신이 만든 논리에 빠져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단형은 지식이나 이론이 조금 다르더라도 마음에 끌리면 선택하는 성향이다. 얼굴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장소나 분위기에 끌릴 수도 있다. 가슴으로 받아들여 감성적인 분위기를 좋아한다. 지식을 가지고 맞고 틀리고 따지는 것을 싫어하면서, 자신은 말투가 어떻고 눈빛이 어떻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따지는 성격일 수 있다. 이들은 혼자 하기보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하거나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 또, 타인을 괴롭히거나 자신을 자학할 수도 있다. 사랑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방황하게 된다. 반대로 타인의 마음 상태를 눈치로 알아맞히고 분위기를 활발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하단형은 자신이 세운 뜻과 의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드러내놓고 무시하기도 하며 행동을 먼저 하려는 성향이 있다.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히려 감정이나 논리로 따지는 것에 성질을 낼 수 있다. 불만을 가지고 투덜대는 것을 싫어한다.

상중하 세 가지 성향 중 한 가지가 두드러진 경우도 있지만 주변을 보면 3가지 중 2가지는 유사하고 하나가 약한 사례가 더 많다. 평소 상중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다. 생각과 행동을 잘하는 사람은 감성을 풍부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성과 사고가 풍부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저질러보는 연습을 하여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감정도 풍부하고, 행동도 잘하는데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부족하면 논리적인 사고를 연습해야 한다.

상 · 중 · 하단형으로 성향 구분
3가지 모두 사용하는 연습 필요
반대성향 친구사귀며 자신 보완

상중하 세 가지 성향 중 한 가지가 두드러진 경우도 있지만 주변을 보면 3가지 중 2가지는 유사하고 하나가 약한 사례가 더 많다. 평소 상중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다. 생각과 행동을 잘하는 사람은 감성을 풍부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성과 사고가 풍부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저질러보는 연습을 하여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감정도 풍부하고, 행동도 잘하는데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부족하면 논리적인 사고를 연습해야 한다.

지식을 가지고 만든 요리 '지혜'

지식과 지혜는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요리와 비교를 하자면 지식은 계란, 양파, 김치와 같은 식재료고, 지혜는 여러 식재료가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단품 요리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단품 요리가 몇 가지 모이면 만찬이 되고 식탁은 풍성해지듯 지식에서 얻어진 지혜라는 작은 깨달음이 모여 큰 깨달음이 된다.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수련이다.

문명의 발달과 오랜 역사에서 지식과 정보는 점점 늘어나고 이것을 가르치는 곳도 넘쳐난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는 낮과 밤에 관계없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원석과 같은 데이터가 있고, 통계를 통해 뽑아진 가공된 데이터가 있다. 분석 및 해석을 하여 의미가 부여된 정보도 있다. 과학 실험으로 자연의 섭리를 하나씩 정리하여 알려 주는 어떤 법칙과 이론들이 있고, 옛 성인들의 말씀을 모아 정리한 불경, 성경, 논어 등의 고전들은 보이지 않은 세계와 마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이다. 결국 지식이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 공자, 석가 등 위대한 성인들의 말씀도 내 처지에서 보면 수많은 정보인 지식의 한 종류가 되는 것이다.

지혜는 간단히 말해,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 책을 읽거나 대화에서 알게 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직접 요리하며 필요한 것은 사용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도 목적에 따라 김치전이 될 수도 있고, 김치 튀김이 될 수도 있고, 김칫국이 될 수도 있다. 지식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지혜와 깨달음으로 나타난다. 아무리 요리책을 많이 보고 음식 맛을 잘 구별할 줄 알아도 직접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음식이 아닌 엉뚱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도저히 먹지 못해 버리는 음식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요리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몸은 숙달되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된다. 이렇게 깨달은 비법은 자신만의 진정한 노하우로 남을 것이다.

책을 보거나, 노래를 듣는 등 오감으로 습득한 정보가 저장되기 위해서는 몸과 뇌, 가슴 등에 공간과 기운이 필요하다. 이 정보들은 내부에서 소화되는 과정을 통해 흡수되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흡수되면 피와 살이 되지만, 흡수되지 못하면 탈이 나고 부패하며 냄새가 나는 독이 된다. 결국 질병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래서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 받아들인 정보는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이 있어야 한다. 흡수된 정보는 행동을 할 때 새로운 정보로 만들어지고 배출된다. 행동하지 않아 배출되지 못하면 정보와 지식의 비만을 통해 성인병과 같은 지식의 자아도취에 빠진다. 행동을 하여 주변에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올바르게 흡수했는지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다. 자연은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등으로 순환한다. 이처럼 지식을 받아들여 지혜로 배출하는 과정 역시 삶이라는 사이클 속에서 정상적으로 흐를 것이다.

지구는 학교

학교(學校)는 본래 삶의 의미와 방향을 배우고 익히며 스스로 덕을 밝혀 지극한 선(善)에 도달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류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물질적으로 많이 발전하였다. 이제는 전설 속 토끼가 살고 있는 달과 화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정신적 배움의 바탕은 기원전 5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정립된 사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인류의 4대 성인의 정신적인 가르침은 2,000~2,5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인류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범위를 확장하며 발전했다. 어느 학자는 역사 이래 생로병사의 삶의 본질은 변화된 것이 없지만 단지 물질을 사용하는 기술이 발전하여 본래의 감각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구를 다양한 만남과 이별을 공부하는 학교에 비유하는 듯하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돌아간다'는 표현은 '죽는다'와 다른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는 육체가 자연으로 돌아가 타 생물이 성장할 거름이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종교적으로는 천국으로 가거나 염라대왕 앞으로 가서 삶의 밥값을 하고 왔는지 판단 받는 것을 뜻한다. 유학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오른 인귀는 상제의 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조상들은 원한으로 미련이 남은 귀신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어느 쪽을 믿든 우리는 지구라는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주변의 평가를 받으며 아파하고 기뻐한다.

'같은' 지식서 '다른' 지혜 출현
불필요한 정보 판단해 버려야
적성 찾아 '전문가' 돼야 삶 풍요

같은 대학에서 함께 공부를 해도 전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과목을 배우는 것처럼 인생 공부에도 자신의 적성에 따라 다양한 전공 분야가 있다. 자신의 인생 학교 전공을 찾아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삶의 재미가 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어떤 전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특성, 사주, 부모, 자란 환경, 경험, 변화를 추구하는 영성을 종합하여 천명(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삶의 주된 목적이 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 전공이 된다. 생년월일시로 삶의 방향을 유추하는 사주에서는 보석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자신의 적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공되지 않은 원석으로 오랜 시간 정교한 세공을 통해 보석으로 탈바꿈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된다. 만인만도라 하였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분야를 선택하여 즐겁게 배우고 일하며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분야를 이루어 장인이 되기 위한 노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같은 재료로 같은 장소에 집을 지어도 어떻게 조합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모습과 내구성을 가지게 된다. 여러 재료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때 좋은 집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재료가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겠다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다면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삶이 기둥이 되어야 하는지, 지붕이 되어야 하는지, 바닥의 모래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위치가 바로 자신의 일이며 소명이 될 것이다. 경제 활동이나 먹고 사는 일만 있고 자신의 삶이 없어 따분한 삶이 되지 않도록, 일과 삶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빈낙도할 수 있는 풍요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이 명상에서 보는 잘 사는 삶이다. 〈끝〉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마음 다이어트〉(책나무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툘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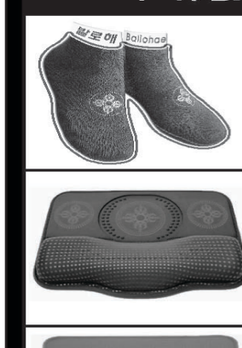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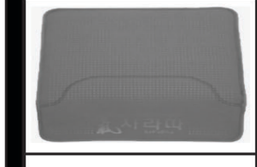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부적기름의 혁명
松 송 根 근 油 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전강 스님 ㊤

스님 진영과의 길고도 깊은 인연

2003년 5월 대학 선배이신 자운형이 비구니 스님 한 분을 모시고 찾아왔다. 대전에 있는 선방에서 수행중인 상경 스님이라 했다. 세 사람은 동양화과 선후배로 공통의 관심사가 많아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부터 인간의 이상에 이르기까지 편안하게 대화했다. 대화 말미에 이르자 스님은 노란 서류봉투 속에서 오래된 흑백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 주었다. 전강 스님과 송담 스님 사진이었다.

나는 전강 스님과 송담 스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말했다. 그러자 스님은 경허, 만공, 전강, 송담 스님으로 이어지는 선맥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선'이 미술에 끼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 선의 법맥에 대해 잘 몰랐고 관심이 크지 않았다. 그래서 전강 스님을 중심으로 한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스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전강 스님이라는 분이 훌륭한 분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전강 스님은 본인보다 더 큰 상좌를 키웠고 송담 스님은 은사스님의 뒤를 잇기 위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어느 사회든 대선사가 불쑥 솟아 나오지만 그 스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의문이다. 스승의 맥을 이으며 현장을 지키는 제자보다 큰 스님의 이름을 앞세워 살아가는 제자가 많다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왜 우리 시대에는 육조 혜능 같은 대선사가 없는가? 이와 달리 송담 스님은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후학들을 다스리고 있으니 존경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다.

상경 스님은 전강 스님과 송담 스님 법문 CD를 보냈다. 많은 양이었지만 나의 무지를 깨우쳐 주려한 스님의 마음 씀씀이와 공력에 감사하여 귀하게 다루었다. 전강 스님의 법문은 사투리와 억양이 독특해 말의 의미를 알아듣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몇 달이 지나 상경 스님이 또 찾아 왔다. 이번엔 송담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평소 달마도를 즐겨 그리시는 송담 스님께서 인물과 산수 등 정통 수묵화를 배우고 싶어 하신다며, 내게 시간을 내어 수묵화 그리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스님의 제안에 더 이상 말문을 열지 않았다. 나와 생각이 많이 달랐고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전강 스님의 진영에 대한 일은 이렇게 시작 되었지만 스님과의 인연은 그것이 처음이자 끝이었다. 훗날 상경 스님이 병이 깊어 입적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다.

2014년 용주사 박물관장이신 보승 스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강 스님과 송담 스님의 진영을 모실 계획인데 전통회화 방식으로 그린 진영과 서양화 기법으로 그린 진영은 무슨 특성과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는바 가감 없이 답했다. 장고 끝에 그 작업을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물어왔다. 나는 순간 전강 스님과 관련하여 상경 스님과 이루지 못 한 인연이 떠올랐다. 인연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전강 스님의 진영에 대한 인연은 길고도 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전강 스님 진영을 모실 장소인 해남 대흥사로 갔다. 보승 스님과 대흥사 선원장 정찬 스님의 안내를 받아 박물관 내에 모실 공간을 살펴보았다. 그 후 다시 보승 스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번엔 내가 그린 법정 스님의 진영을 보고 싶다 했다. 길상사 진영각에 들러 법정 스님의 진영을 보고 인천 용화사까지 동행했다. 스님은 용화사에 모셔있는 전강 스님 진영을 보여 주었다. 모두 유화로 그린 초상화였다. 한 점은 오래전에 그린 작품이었고 나머지 한 점은 원작을 기초로 새로 그린 그림이었다. 스님들은 새로 그린 이 진영이 스님의 모습과 다르다 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리게 된 것이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스님 법문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말을 지워나갔다
마지막 남은 단어가 '무아' 였다

며칠 뒤 용화사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진영 작업을 위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스님과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받지 않았다. 대신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한 엄밀성에 대해 말씀 드렸다. 작가로서 성심성의를 다해 과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려 달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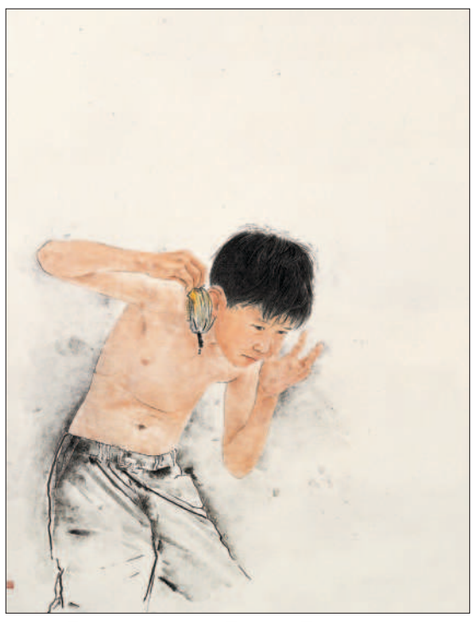
보승 스님은 한번 그린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완성된 그림은 그 위에 더 그릴 수는 있지만 지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한 번은 더 그려 보겠다고 했다. 만약 두 번째 그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물러나겠으니 좋은 작가를 다시 찾으라고 말했다. 스님은 그럴 경우 경비는 어떻게 지불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작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경비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을 적시하였다.

나는 계약을 한 뒤 이천 은선사를 찾아갔다. 전강 스님의 제자이신 혜영 스님을 찾아뵙기 위해서였다. 혜영 스님은 은사스님을 그릴 화가가 찾아 왔다는 사실에 고마워했다. 그리고는 평생 수집한 전강 스님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넘겨주셨다.

그 뒤 다시 은선사를 찾았다. 이번엔 혜영 스님께 전강 스님의 대역 모델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스님은 전강 스님과 비슷한 체구를 연출하기 위해 속옷을 여러 벌 껴입는 등 방불하게 보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스님의 진영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 스님의 노력에 감사한다.



칼에 묻은 꿀 143×74cm 종이에 수묵채색 2001
어쩌면 인간의 삶은 칼끝에 묻은 꿀 한 방울을 먹기 위한 현실인지 모른다.



소리를 듣던 날 130×96cm 종이에 수묵채색 2001
성찰은 버려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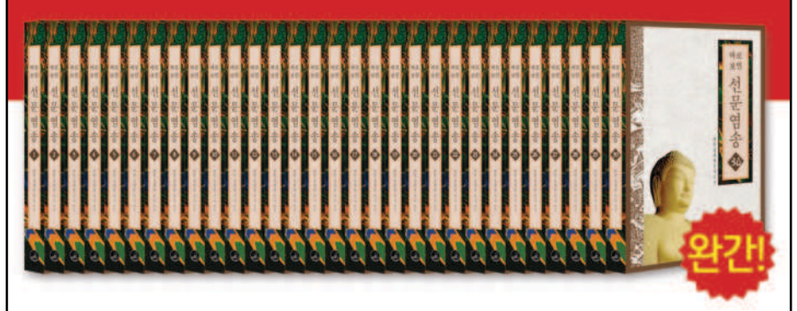
나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전강 스님의 법문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 스님을 알아 가기에는 그것 이외에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덮었다. 스님의 모든 말을 지워 나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까지 남아있는 단어가 '무아' 였다.

무아(無我)는 유아와 상대적인 개념의 말이다. 무아는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설정해 놓은 선과 악에 기초해 차별을 만들어 낸다. 원래 차별은 없다.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존재한다. 궁극의 대상일 뿐이다. 차별은 내가 만든 형상의 또 다른 해석이다.

성찰이 필요했다. 선, 명상, 기도 어떤 것이든 공부해서 무아의 단계에 진입해 보기로 했다. 무아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우선 생각을 절제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생각을 줄이고 절제하여 더 이상 줄이거나 보탤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면 분별과 차별의 단계가 사라질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했다. 무아는 공부의 출발이었다. 그러면서 극점이었다.

전강 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신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불조정맥 제77조 전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3번째 저서 출간!!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각권 15,000원 / 전권 구입시 15% 할인됩니다.
031-534-3373 / 010-4520-7963

〈도서출판 바로보인〉이
〈도서출판 문젠〉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 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불자 세상보기

젊은이 취업문제, 사회구조적 접근필요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지난 9월 24일 부산에서 황당하면서도 서글픈 사건이 있었다. 새벽 2시경 부산 황령산 봉수대에서 여성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3개 경찰서에서 70여 명이 3시간 가까이 수색을 했다. 뒤늦게 네 명의 여자 등산객을 탐문하여 확인한 바, 이들 중 한 여자가 "하느님, 취업 좀 되게 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외친 것이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살려 주세요"라는 외침을 듣고 신고를 한 것이었다. 사건을 종결하면서 한 경찰은 "기도가 좀 지나쳤다"고 하면서도 매우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황령산의 살려 주세요'는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가 극적으로 표상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스스로를 3포 세대, 5포 세대, 다 포기한다는 다포 세대 등 자신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사실 취업 못한 청년들은 추석 때 고향가기를 포기하고 연휴기간에 개설된 취업 특강을 듣거나 노량진 주변 카페에서 서성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또한 추석 연휴 중 취업 잔소리를 한다고 아버지를 칼로 상해한 사건도 보도된다. 오호라. 이를 어찌 할 터인가?

이들 청년들은 자신이 사는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 표현하고 있다. 지옥을 의미하는 'hell'에다 봉건사회 '조선'을 합성한 것이다. 또한 '개한민국'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 속에는 젊은이의 분노와 좌절이 짙게 배어 있다.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나온 부유층은 단군 이래 최대의 태평성대를 보내지만 흙수저를 물고 나온 계층은 희망 없는 유민이 되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는 나 같은 기성세대는 한결 불편해진다.

해방과 6.25 전쟁 통에 태어난 세대들 중에는 한 끼의 배고픔을 어떻게 채울까, 오늘의 잠자리는 어딜까를 걱정하면서 고학을 하여 자기 성취를 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되었고 한국을 경제 선진국(?)에 올려놓은 머슴의 역할을 하였다.

나 같은 층이 옛 경험을 예로 들면서 젊은이에게 충고를 한다면 곧 '노력충'의 부류에 속할 위험이 많다. '노력충'은 벌레의 일종인데 노력하라는 충고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젊은이를 위한다는 책도 유행처럼 출판되었는데, 이제는

한 취준생의 "살려달라" 비명
한국사회 현 세태 보여줘 '씁쓸'
청년 개인 문제 치부해선 안돼
돈 · 경쟁 벗어난 사회 만들어야

'아프니까 청춘' 식의 이야기에 식상해 버렸다.

우리 청년들의 현실에 가슴앓이 하면서 나는 벙어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 모두가 나 같은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동안 경쟁적 생존적 삶의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 왔고 우리의 교육제도도 이를 뒷받침해 온 교육이 아니었던가.

정신적 가치의 물화현상에 빠져 우리는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에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 사회는 계층 양극화시대로 접어들었다. 내가 살았던 시대는 지진의 시대였고 지금의 젊은이는 견고한 화폐의 콘크리트 시대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청춘들은 꿈을 잃고 비전을 상실했다. 한 마디로 기(氣)가 빠진 것이다. 기가 빠지면 사는데 맥이 없고 신명이 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는 찰나적 쾌락주의를 만연시킬 위험도 매우 많다.

이제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개인의 가치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 즉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본다.

신명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은 어떤 삶이고 이러한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돈과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체제는 과연 무엇인가? 붓다의 자비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독서하고 있는 분야도 여기에 있는데 머리가 어지럽다.

발언대

군종교구 10주년에 바란다

조계종 군종교구가 2005년 7월 25일 창립된 이후 9월 28일 일면 스님의 교구장 취임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지 10주년을 맞았다. 현재 3기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 군포교의 새 장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군의 날을 맞아 군종교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법요집 · 합장주 등 지원 절실해



유선재
대불련 군포교 지원단장

군포교에서 중요한 것은 장병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이다. 군포교 현안에는 노후법당 보수, 군장병 참석인원 감소에 따른 대책 등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법요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군법당에서 오래된 법요집을 쓰고 있다. 낡은 책자로 인한 문제는 그 내용이 고리타분하다는데 있다. 장병들이 알아 볼 수 없는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병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어떤 법당에서는 부족한 법요집으로 인해 인근 사찰에서 공수한 법요집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대안은 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서 발간한 국군법요집이 있다. 종이의 질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책의 구성과 내용 또한 현재 진행하는 법회에 맞도록 만들어져있다. 하지만 국방부 예산 편성이 매우 부족하다. 필요한 부수 만큼 발간하고 있지 못하다. 종단 차원에서 군포교를 위해 정부 측에 법요집 보급을 요청했으면 한다.

두 번 째는 일반 군법사와 민간 포교사 마다 법회 진행 순서가 제각각이라는데 있다. 이런 부분도 협의를 통해 일치시켰으면 한다. 일선 군승법사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어 많은 장병들이 신임법사로 인한 혼동이 있다. 이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장병들이 신심고취와 심리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합장주를 배부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제작시 1000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군에서 제작하면 200원 가량에 살 수 있다. 군종교구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많은 병사들이 합장주를 소지하고 군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먹을 것 보다, 불교콘텐츠가 중요하다



여정 강건욱
군승법사

포교현장에서는 장병들이 외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자료가 필요하다. 이제 군포교 현장에서는 장병들을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필요한 시대다. 요즘 많은 불자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군법당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먹을 것으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예전보다 힘들다.

많은 병사들이 군대에서 1년 6개월 이상 법당을 접한다. 그 시간 동안 단순히 불교와 인연을 맺는데 그치지 말고, 보다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다면, 사회에서 독실한 불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회의 콘텐츠를 위한 것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책자보다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한다. 하지만 시청각 자료의 경우 법당 상황상 활용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프로젝션 등 조금만 관리를 못한다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요집과 책부터 재미있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장병들이 편안히 찾아와 책을 보며 불심을 다지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군포교 또한 청년불자를 양성하는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자, 즉 병사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

1000명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군법당은 교리 위주 공간이 아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제 장병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에 군포교 성패가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社說

비구니회장 선거 공명하게 치루자

오는 10월 12일 이뤄지는 전국비구니회 11대 회장 선출이 선거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10월 1일 현재 등록 접수를 마친 후보자는 자민 스님(천안 연대선원)과 육문 스님(군위 법주사 주지)으로 각각 기호 1번과 2번을 배정받았다.

차기 회장 후보로 나온 자민 스님과 육문 스님 모두 비구니계에서 명망이 높은 스님들이다. 자민 스님은 오랜 기간 제방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했고 대중 포교, 사회 사업, 종단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육문 스님은 10년간 비구니 선림회 회장 소임을 맡았고, 현재는 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 이사로 있으면서 후학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어떤 스님이 회장이 되어도 흠결이 없는 인물이다.

아직 10일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후보가 단일화돼 추대 형식으로 총회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전국비구니회 장 선거가 여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냐는 것이다.

전국비구니회 회칙에는 회장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고만 명시됐고 구체적인 절차는 나와있지 않다. 선거인단 구성도 문제다. 선거인단 자격이 명시돼 있지 않으니 어느 선까지 선거인으로 들어갈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조계종 승려증을 가진 모든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6000명에 이르는 선거인명부를 어떻게 만들지도 관건이다. 육문 스님 선거대책본부가 전국비구니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계종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제 선거가 시작된다. 청정성의 보루인 비구니 승가마저 혼탁 선거로 멍들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미 전국비구니회는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절차문제로 인해 지난 1년여 간 겪은 내홍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양분된 전국비구니회를 화합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원력있는 스님이 11대 회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것을 전국 비구니 스님들은 인식해야 한다.

풀뿌리 신도조직 활성화 기대한다

조계종 신도네트워크 전국화의 핵심사업인 교구신도회 창립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희망드림 대장정'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업을 진행해 온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연내 전국에서 교구신도회를 구축하고 향후 SNS를 통한 운영 활성화에도 나선다고 한다.

현재 24개 교구본사 중 교구신도회 창립은 신흥사, 마곡사, 해인사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됐다. 신흥사의 경우 오는 10월 13일 교구신도회를 발족한다고 하니 사실상 2곳만이 남은 셈이다.

그동안 조계종은 중앙신도회와 본말사 신도회가 있었지만 중간 연결고리인 교구신도회가 부재해 지역 및 사회 활동의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중앙신도회는 교구신도회를 통한 전국 조직의 신도회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실제 성과도 있었다. 공익모금운동 행복바라미 사업의 경우 교구신도회 차원으로 활동을 전개한 3년차 사업이 1, 2년차에 비해 60% 이상 모금액이 늘었다. 이는 교구신도회 창립 이후 중앙단위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구신도회는 사찰신도회를 근간으로 하기에 사찰신도회 활성화가 결국 교구신도회 활성화로 직결된다. 승가와 재가 모두 중도의 묘를 통해 출재가의 조직네트워크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신도회는 전국 교구본사 순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청취해 향후 교구신도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불교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에 대한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 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고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酬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BTN 불교라디오 www.btn.co.kr

불교음악오디오 채널을 풍성하게 할 불교음악을 모읍니다

"혹시 '불교음악오디오 채널' 들어보셨나요?"

10월 가을날, BTN에서는 불교음악오디오 채널운영을 시작합니다. BTN에서는 불교음악의 활성화와 방송포교의 다양화 차원에서 10월부터 위탁 운영을 결정하고, 불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반으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거나, 또한 최신 다양한 불교음악과 독경, 부처님 말씀을 오디오 채널을 통해 많이 소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법보시 및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 보관하고 계신 불교음반(찬불가, 염불, 독경, 부처님말씀 등)의 음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 3270-3338 (BTN불교라디오 담당자) *E-mail : nadapacem@btn.co.kr
*보내주실 곳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BTN불교TV 빌딩 불교라디오 담당자 앞



BTN불교라디오는 BTN홈페이지, 모바일웹 [m.btn.co.kr], BTN스마트폰 앱 을 다운받으셔서 청취가능 합니다. ARS후원전화 060-800-7000 방송포교 정기후원 02)3270-3301~2

학창시절 佛法에 감동…

김호준 교사 (보광고등학교 인성부장)



김호준 선생님은 … 1967년 5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이후 고등학교시절 체벌로 방황하다 1988년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후 양산 보광고등학교에 재직중이다. 현재 국어를 가르치며 인성부장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2000년 첫 담임을 시작한 이후 문집 제작과 인터넷 카페, 배구동호회 등을 통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행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기가 2015년 조계종 신행수기공모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남 양산 통도사 아래에 위치한 보광 고등학교. 이 곳에는 2015년 조계종 신행수기 대상을 받은 인성부장 김호준 선생님(48)이 근무하고 있다. 과거 학생부장으로 불렸던 인성부장은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부적응, 왕따, 흡연 등 학교 내 가장 어렵고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위치다. 그의 위치는 학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지혜가 더욱 요구된다. 김호준 선생님은 신행수기에서 자신의 청소년기를 돌아보며 인생역경과 그 당시 만난 부처님을 통한 성찰이 교사생활의 답이 됐다고 한다. 영축산 가을의 단풍이 함께 익어가는 9월 24일, 보광고등학교에서 김호준 선생님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었다.

부처님의 지혜 반영된 인성교육 강조

강하게 울려 퍼지는 파이팅 소리, 네트를 넘은 배구공은 상대 진영에 강하게 내려 꽂힌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반복해서 공은 올라가고 학생들의 수비와 공격 연습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어느 누구하나 지쳐보이는 표정이 없다. 핸드폰과 게임 등 중독성 강한 매체에 끌려 다니는 요즘 아이들의 어두운 표정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김호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찾은 보광고등학교에서는 긍정과 밝음의 밝은 에너지가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학생들의 동호회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해 스스로 찾고 연습합니다. 운동을 통해 긴장도 풀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공통 화제도 생기는 것이 운동이 주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그렇게 다시 공부에 매진 할 힘도 얻게 되죠."

보광고등학교의 배구 동호회는 제9회 경남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경기에서 3위를 차지했다. 취미로만 활동한 그들의 실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보광고 체육관에서 처음 만난 김호준 선생님의 모습은 마치 배구부 코치와 같았다. 어느 강력계의 형사와 같은 카리스마조차 흘러나왔다. 김호준 선생님은 "선생이라고 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를 대하는 모습에는 미소가 만연하다. 먼저 웃고 본다. 무서워보였던 김호준 선생님의 얼굴이 학생을 마주하자 금방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변한다. 마치 옆집의 편안한 형처럼 변한 그를 보며 학생들이 엄지를 세우고 "최고입니다"라고 말한다.

학생들이 스스럼 없이 선생님들 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가. 김호준 선생은 그 비결에 대해 '소통'을 꼽았다.

"몇 년 전, 35세를 맞아 학교 아이들에게 배구를 가르치기 위해 사회인 배구동호회에 갔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잘한다고 자부할 만한 실력은 아니여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잘 이끌어 주기 위해 운동이 좋다는 말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김호준 선생님이 배구를 늦깍기로 배우게 된 이유는 바로 학생들 때문이었다. 학생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이 김호준 선생님의 화두였다. 학생들과 소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곳곳에서 보였다.

"학교에서 부적응 청소년이라고 낙인 찍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환경이 어려운 학생 일수록 대화를 잘하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배구 동호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를 대하는 학생들의 시선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그는 여기에 또 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바로 학급문집 제작이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 김호준 선생님은 학교 인성교육부를 통해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문집을 내고 있다. 그의 가방에서 나온 문집들은 학생들의 이야기로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문집 제작도 일종의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잠시라도 생각하고 그것을 적어나가는 동안 생각이 정리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그리고 방법도 스스로 터득하게 되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마음을 여는 시작입니다."

'유능제강(柔能制剛)'이란 제목이 쓰여져 있는 문집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복싱', '시야 놀자', '바리스타 배우기', '인생에는 왕도가 없다', 통도사 무풍한송로 걷기 등 다양한 내용이 섞여 있었다.

벽 허물고 학생들과 진정한 소통 시도
문집제작 · 배구동호회 등 다양한 지도
통도사 걷기 등 불교프로그램도 적극 활용
본인의 학업 중단 아픔, 불교로 극복

"학생들을 지도할 때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 꿈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칫 학생들이 강한 것에 대한 인식을 잘못 생각하고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폭력적인 면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한 그 선택은 지금 중요한 청소년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좋은 생각을 이끌고 발전하는 방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도 제시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돌아보는 글도 넣고 대화법을 설명하는 글을 가져와 읽게 하고 스스로 답을 적게 합니다. 바리스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직업을 체험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돕기 위해 문집에 넣었습니다. 꿈을 가지면 삶에 대해 좀 더 진지해지지 않겠습니까?"

진심이 전달된 것일까? 졸업 후 그를 찾는 졸업생들과 군대 입대 후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 학생들이 줄을 이었다. 현재 48세인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제자들의 주례 부탁도 줄을 잇고 있다.

"주례를 맡기에 어리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중대사에 저를 믿고 찾아와 부탁을 하니 거절을 못하네요."

김호준 선생님은 이런 소통의 중심에 '불교'가 있다고 했다.

알아차림 수행, 학생들 상담때 큰 도움

김호준 선생님은 인터뷰 내내 "미리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라"는 말을 항상 유념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가치관이 불교의 '알아차림(사띠)' 수행에서 얻은 지혜라고 했다.

"알아차림은 있는 그대로 보는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불손한 태도를 접하거나 학부모님들과 상담 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손한 태도로 보이는 행동이 보이지만 일단 먼저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나 자신이 느끼는 불쾌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학생의 태도와 잘못에 대해 일단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큰 힘이 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모든 학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학생에 대해 갖게 되는 과거의 편견을 걷어내고 무슨 잘못을 했을 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 학생에게 집중하면 그 대상도 진심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

"학교에서의 문제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들의 학부모도 선생 조차도 모두 피해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서로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기까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이야기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이야기도 말입니다. 어제의 가해자라고 낙인찍힌 아이는 내일에는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항상 잘못만 하는 아이는 없으며 항상 모범적인 학생은 없습니다. 그 순간 어떤 판단을 했고 실수를 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편견만큼은 버려야 하죠."

김호준 선생님의 집무실 책상은 〈반야심경〉, 〈금강경〉, 그리고 성철 스님의 사진으로 가득했다. 매일마다 아침이면 108배로 시작해 경전 독송 그리고 명상 까지 그의 삶은 불교로 시작한다. 교과목 외에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 순간이면 프로그램으로 불교의 경구를 인용하기도 하고 통도사 무풍한송로 산책 및 절하기 등 불교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치하기도 한다. 불교가 주는 마음공부의 탁월함과 치유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상처는 곧 회복으로, 그리고 치유자로 나서

김 선생님이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은 본인이 그런 아픔을 불교를 통해 극복했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당시 김 선생님은 체벌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3월에 일어난 일이었다.

"수업시간에 당시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셨는데 뒤돌아 보던 제가 시범 케이스로 걸린 것이었죠. 당시는 체벌이 수위가 높아도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저도 다섯 대 정도는 맞겠구나하며 앞으로 나갔어요."

당시 16세였던 김호준 선생님의 얼굴에는 손바닥이 날라왔다. 1대, 2대, 3대…끝이 날 줄 알았지만 김 선생님이 맞은 것은 58대에 달했다. 김 선생님은 당시 그 충격으로 모든 꿈이 산산히 부서졌다고 했다.

"동물을 너무 좋아해 서울대 축산과를 꿈꿨습니다. 수재라는 말도 듣고 했으니 주변의 기대가 높았죠. 그런데 학교에서 그 충격은 이후 저의 피를 말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모든 학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기〉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모집

동양역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서울벤처대학원 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졸업 후에도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이 시대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역학 전문가,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진 :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장, 학선 유래웅 고려기문학회장, 박영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동양학부장,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백운암 노성순교수, 박청화 청화학술원장, 최명우 현공풍수지리연구소장 , 창광 김성태원장,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글로벌사이버대 문봉 박재범교수, 서경대 김인순교수, 충청대 남정 권오연교수 외

■ 대 상 : 역학자, 명리학 초 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 일 정 : 1학기 과정(15주), 10월 19일부터 매주 월(月) 18:40 ~ 21:30
■ 수강료 : 185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1-275629 (예금주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특 전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자격증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문화관광부 등록)

선정릉역 2번 출구 (지하철 9호선 / 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문의 02-3443-4984 www.gfca.kr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자비심도 내리사랑으로 전해요



학생들과 함께한 영축산 등반대회. 아래줄 맨 오른쪽이 김호준 선생님


교내 배구동호회 활동 후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뒷줄 왼쪽서 다섯번째가 김호준 교사).


학생들과 수학여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호준 선생님(아래줄 왼쪽서 세번째).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서 대상을 수상하고 난뒤 플랜카드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호준 교사.

꿈도 의욕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학교에 가는 것은 고통이였으며 밤마다 들리는 환청에 악몽을 꿔야 했다.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2학년 때는 180cm의 기케 몸무게는 채 60kg이 나가지 않았다.

"다시 생각해도 지옥같았습니다. 당시 불자가 아니셨던 어머님이 저를 위해 절을 다니기 시작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조용히 저를 데리고 한 사찰로 가시더군요. 고성 운흥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절을 하라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포단에 엎드렸습니다. 저를 인자하게 내려다 보시는 부처님의 모습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엉엉 울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사찰에서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부처님께 안겨 세상을 향해 드러냈던 반항과 살기도 어느 순간 사라졌음을 감추었다고 했다. 박 선생님은 어머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입학한 동기들과 졸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불교로 삶을 지탱, 끝까지 불교로 회향할 터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기억을 이겨낸 그는 그 이후 불교를 떠나지 않았다.

"그 날 이후에는 항상 어머님을 모시고 절을 다녔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천수경 외는 소리를 아침마다 들으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108배를 하시던 어머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절을 가실 때는 노모를 모시고 절에 같이 오르곤 했지요. 그렇게 저도 함께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행 생활은 그의 군대 생활 그리고 이후 사회 생활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는 가는 길 마다 절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식처로 삼았다.

"제가 있었던 군대에는 쌍호정사라는 군법당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곳에서 절을 올리며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임용을 준비하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장 근처에 있던 절을 찾아 청년 활동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매일 출퇴근마다 절을 찾아 수행 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이 없었다. 직장을 다니며 임용을 준비하고 꿈을 찾아 힘겨운 사투를 벌일 때에 그는 더욱 부처님께 매달렸다. 학생들의 손을 잡아 주고 싶다고 했다. 자신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말해주고 싶었다고 한다.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보광고등학교를 이력서를 제출한 날 꿈에서 그는 성철 스님을 만났다.

"꿈에서 성철 스님께서 누더기 장삼을 입으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1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꿈속에 스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께 저희 집은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며 제 소개를 했지요.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조그만한 절에서 선생하고 싶다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철 스님께서는 부처님만 배우면 되지 해인사 꼭 와야 되나?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교사가 된 후 그는 해인사 성철 스님의 부도탑을 찾았다. 비가 내리던 늦가을 성철 스님의 부도탑 바닥에는 빗물이 있었지만 신을 벗었다고 한다. 그리고 빗물을 맞아가며 그는 스님께 절을 올렸다.

"그렇게 스님께 선생 노릇 잘 하겠다고 다짐을 올렸습니다. 그 후 통도사 근처인 이 곳 학교에 온 것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일 아침이면 시간에 맞춰 불교 방송을 틀어 예불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말이면 통도사 암자를 다니며 기도를 하고 긍강경 강의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불지종가 아래에서 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심이 흔들릴 때면 부처님 전에서 염원들을 실천하는 교사로 살고 있는지 다시 물어봅니다."

그는 과거 청소년기부터 현재 교사 생활을 하는 지금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 이라고 했다. 방황을 끝내고 아이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그 시작점을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듯이 그들에게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문제아라고 낙인찍힌 학생들에게 그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어떤 지도가 그들에게 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조용히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그 어떤 지도보다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그들이 그 어떤 말을 해도 부처님은 그 어떤 판단도 지도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들어주시며 안아주십니다. 자신을 그렇게 포용하며 안아주는 마음 그것이 시작입니다."

가장 어렵다는 인성 지도 교사 역할. 그는 사랑이 답이라고 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어려운 이들에게 허물없이 다가가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학생들이 잃어버린 자신들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잃어버린 청소년의 시간을 그렇게 찾아갈 것이라 했다.

양산=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조고각하(照顧脚下)

불가(佛家)에 전해오는 말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조고각하(照顧脚下)' 이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자기 발아래를 잘 살피라"는 의미인데, 출가해서 사미 시절에는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절집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이 문구를 만난 후 지금까지 나를 채찍질하는 가르침이 되고 있다.

일찍이 동진출가로 불문(佛門)에 들었던 나는 철이 들면서 무언가 거창한 깨달음을 얻어 보겠다는 포부가 생겼던 적이 있었다. 그땐 경전 속 난해한 문구에 매달리기도 하고, 선배스님과 은사스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풀리지 않는 의문을 해결해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스님이라면 누구라도 구도심이 한창 불타오르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나 또한 어린 마음에도(道)를 이루는 일이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며 마음속으로 그런 일을 하는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니 새벽에 눈을 떠서 도량석을 시작으로 맑은 다기물을 올리면서 부처님 앞에서 예불의 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부처님처럼 되보겠다고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아침이면 온종일 절집의 잡다한 일을 하느라 동분서주하는 내 하루가 무의미하고 아깝게 여겨질 때도 있었고, 대중생활에서 겪는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견디는 일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십대의 어린 나이였으니 당연히 올라오는 불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노스님의 시자로 시골의 암자에 따라 갔다가 '조고각하(照顧脚下)' 란 말을 우연히 만났다. 절집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글귀지만 특히 선방에서는 새하얀 신발을 벗고 신는 곳에 잘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 보기가 싫어도 보게 되는 글이다. 이 글자가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했는지 모른다. 발아래를 잘 살피라는 말의 숨은 의미는 대중생활을 하면서 신발만 잘 벗고 신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도(道)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발아래를 살피려면 누구나 고개를 숙여야 한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발아래를 볼 수 없다. 즉 공부에 관해서든, 자신의 수행에서든, 만나는 인연에 대해서든 하심(下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도 될 수 있다.

특히 출가 수행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몸가짐이요 마음가짐인 것이다.

훗날 '조고각하' 란 말이 중국 송나라 오조 법연선사의 일화에서 나온 말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세 명의 제자와 밤길을 가다가 등불이 꺼지자 스승인 법연선사가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고 묻자, 제자 중 한사람인 원오 스님이 '조고각하' 라 답했다 한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놓였을 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자신의 발밑을 잘 살피는 것뿐이다. 먼 곳으로 시선을 빼앗겨서는 나아갈 수 없다.


그림 · 박구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자신의 발밑을 보기 보다는 저 멀리 높은 산이나 나보다 앞서간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산다.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지 못하고 타인이나 외부로 향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큰 산을 움직이는 일은 언제나 작은 돌을 들어 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마음에 큰 뜻을 품은 사람일수록 작고 사소한 일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마음을 겸손히 지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고각하(照顧脚下)는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내딛는 첫 발걸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지금도 나는 하루에 한 번쯤은 발아래를 슬쩍 살펴본다. 지금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딛고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 돌아보게 된다.



덕신 스님(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선으로 가는 길 (대,소)

달마도 (대,소)

밝고 향기롭게 (대,소)

선화의 향기 (대,소)

반야심경 (대,소)

산사의 꽃 야생화 (대,소)

암자에 길을 묻다 (대,소)

부처님의 성지 (대,소)

그리운금수강산 (대,소)

붓다의 향기 (대, 소)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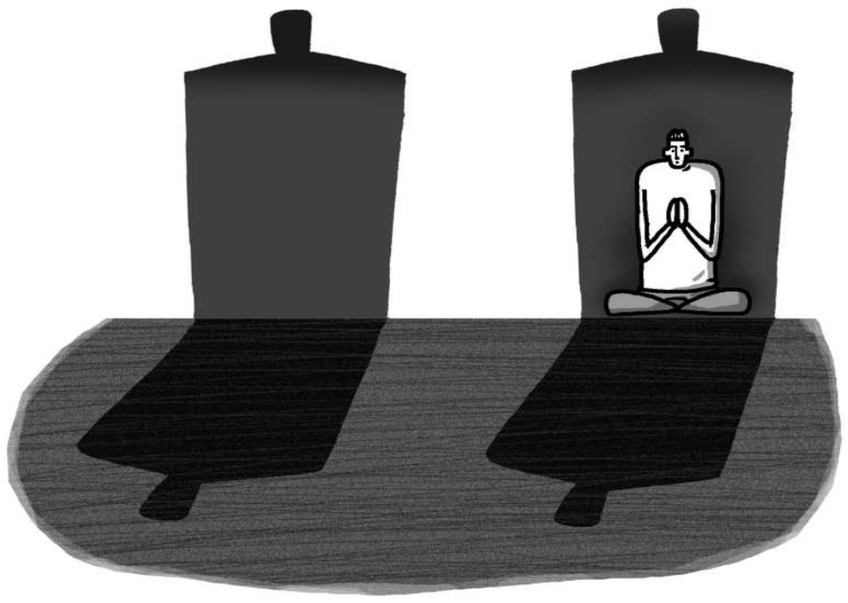




스프링 수첩

트윈스프링 차걸이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종교이고 불교입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닌 도리를 공부하시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활 빼놓고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종교라는 것도 없고 법당이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형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긴데 우리가 돈오(頓悟)라는 것은 위에서 그대로 깨쳐서 실천을 해 내려오는 과정을 말하고, 점수(漸修)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깨달아서 올라가는 것이 점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단번에, 찰나에 그냥 깨치는 것은 깨치되, 깨치게 되면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에다가 집중해서 실천을 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깨달아 올라가는 것도 실천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거든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든 둘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생활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부처도 없습니다. 부처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생활 자체가 그대로 법입니다.

그대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항상 말하지만 애고라든가 어떠한 업보가 닥쳐오고 용도에 따라서 피치 못할 일들이 닥쳐오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냥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마음이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마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마음이라니까,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게 마음인 줄 알지 마시고요, 똑바로 진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나가려면 애고(哀苦)가 닥치고,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애고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 달리고 코 달리고 귀 달리고, 육근(六根) · 육진(六塵) · 육식(六識)이 충만한 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를 모르고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이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식이나 남편 또는 부인이나 자식을 등한시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화가 나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욕해 버리고 아무렇게나 야단쳐 버립니다. 첫째는 내가 말을 그렇게 한다면 마음에 입력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서 조심해야 합니다. 입력이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나오고 더디 나오고 이것뿐이지,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정진한답시고 또는 밤 정진 한답시고, 기도 간답시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남편과 자식을 등한시하고 또는 부인과 자식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해서,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즉 말하자면 외로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나가서 간식을 하게 되고 자식은 나가서 방황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스님들의 도량이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둘이 아니기에 아픔도 둘이 아니요,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이 법당이요, 변소에 가면 변소가 법당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요. 내가 없다면 모든 게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산란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거기다 되돌려놓고 지켜보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도량에 왔다가 빨리 다녀가도 되는 것을, 그 저 밤에도 정진한답시고 가정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과 남편을 배고프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그전부터도 내가 밤 정진을 시키지 않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 가는 곳마다 부처가 계신데, 어떻게 밤에 여기서 정진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자기를 돌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고 해서 안 돌보겠습니까? 처처마다 부처고 처처마다 도량이고, 처처마다 자기가 그대로 법인데!

요즘 종교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나는 집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전부터도 그것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절에 기도 들어간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도 '기도 들어간다. 산 기도 간다.' 이럭하고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허황되게, 그렇게 자기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팡이로 세우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의 남편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등한시하면 기도를 아무리 백 번 천 번 해 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안팎이 다 화목하고 아주 즐겁게, 아무 외로움이 없이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그런 길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고 행동에 달려 있고 말에 달려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식탁 위에나 냉장고 문에나 글씨를 크게 해서 써 놓고 "얘들아,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나가니,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널 사랑해!" 하고 크게 써 붙여 놓고 나온다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마음의 그 에너지! 즉 광력의 힘이 거기까지 미쳐 바로 그거를 떼어 보는 순간에 바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을 하지 않게 되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인이고 모두가 말입니다.

여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루 24시간이 고달팠어도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듯이,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하루 24시간의 피로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솟아오릅니다. 애들이 이탈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 99%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양으로 나온 애들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양으로 남편들이 그렇게 되고 부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불끈불끈 내뱉고,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여자나 남자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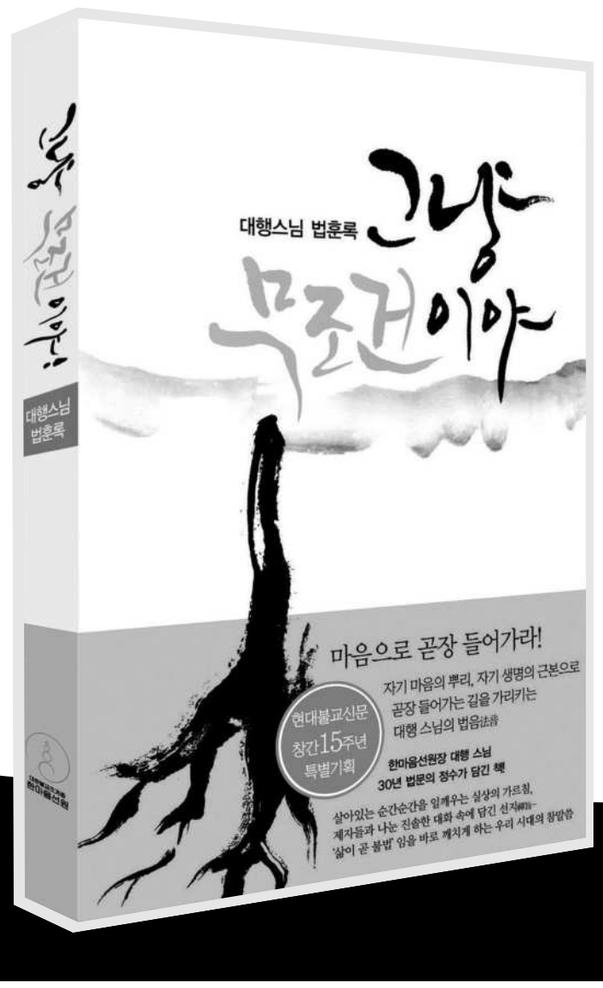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종교라는 것이 절에 나와서 기도나 하고 정성이나 들이고 이러는 게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이 우주 전체에, 인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종교입니다, 불교고. 지난번에 여기서 밤 정진을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굳이 말릴 필요는 없겠지만, 말려야 되겠습니다. 한 발짝 떼어 놓고 가는 것도 정진이요, 보는 것도 정진이요, 앉아 있는 것도 정진이요, 눕는 것도 정진이요, 서는 것도 정진이고 일하는 것도 정진인데, 어떻게 그렇게들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길을 가다 넘어지면 길을 짚고 일어난다고 말을 했죠. 그랬는데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시간에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태도가 그대로 정진입니다.

그거를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지요. 자기 하나로 인해서 일체 만법이 벌어지고 일체 만법이 작용이 되고 일체 만법이 들고나는 겁니다. 빛보다 더 빠르다고, 심력은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항상 말을 했지요. 그랬는데 몇 시간 동안을 여기서 정진한답시고 졸고 자고 온통 그저 말 오고 가는 데에 전념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모두 하나하나, 항상 말하지만 화가 나고 어떠한 잘못이 있고 하늘이 무너지고 깨지고 이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맡겨 놓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한 군데서 일체 만법이 나고 드니까 '나는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오는 대로 심부름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십시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모든 거를 여러분의 차원대로 능력대로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몸까지 다 놓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허공에서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냥 요만한 것만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저 야단들입니다. 지금 금방 이 자리에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당이 되는 것이다!

☞ 21면에서 계속

서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그냥 한 찰나에, 찰나 찰나에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구를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나 깨나 움죽거리는데, 이것도 (법상을 짚어 보이시며)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것도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 네 것 이렇게 마음으로 붙잡고 '요거를 해야 옳을까, 안 해야 옳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거를 붙들고 돌아가니까, 이게 업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모두가 다가오는 대로 업을 지어서 외려 그 윤회성을 바로 입력시키게 됩니다, 그게. 애착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 에너지가, 허공만 하게 큰 에너지가 있다 하면은 그 에너지덩어리는 여러분이 악으로 생각하면 악으로 쓰이고 선으로 생각한다면 선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이고 선이고 한군데서 나옵니다. 한 에너지덩어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악이다 선이다 하고 양단간으로 두 마디만 하지만, 그 천차만별의 악과 선은 가지가지로 다릅니다. 마음으로 악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선을 짓고, 행동으로 선을 짓는가 하면 행동으로 악을 짓고, 말로 악을 짓는가 하면 말로 선을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고(苦)가 고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차원을 높이기 위해 나한테 다가오는 재료로구나 하고선, 그냥 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이끌어 주는 나의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하나도 고가 될 수 없습니다. 고(苦) 하나만 떨어진다면 집착(執着)도 떨어지고 멸(滅)도 떨어지고 도(道)도 떨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고집멸도(苦集滅道), 이 사제법(四諦法)이 하나만, 고 하나만 없다 한다면, 여러분이 망상이 나오느니 뭐니 뭐니 뭐니 하는데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팥죽 솥에서 부글부글 끓는 팥죽 방울이 나오듯, 한 몸뚱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딴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제자리에다 놓으라는데도 그렇게 못 놓겠습니까? 그 팥죽 방울 나오는 대로 제자리에다가 놓는다면 팥죽이 익어서 방울은 다시 안 나옵니다. 이 팥죽 방울이 나온다고 불을 밀리고 놓고, 밀리고 놓고 이래 보십시오, 팥죽이 익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팥죽 방울을 생각하지 말고, 팥죽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팥죽이다, 이것 전체가 팥죽이다 이런다면 아니, 뭐가 걱정입니까?

방편으로 말을 하자면 또 이런 게 있죠. 어느 집에 가서 머슴을 사는데 말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지, 주인의 일을 안팎으로 일일이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참견을 하고. 그럼 주인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머슴으로 살면, 종으로 살면 살았지 웬 주인 일에 그렇게 참견이 많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걸. 그리고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주인이 다 살림을 하는 거니까. 그와 똑같은 얘깁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영원치가 못합니다. 종과 같습니다. 옷이 헐면 주인은 바로 옷을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와 같이 몸뚱이도 역시 옷과 같습니다. 옷 입은 것은 수명이 짧고, 이 몸이라는 옷 입은 것은 수명이 좀 길다 뿐이지. 또 옷이 맞지 않으면 후딱 벗어 버립니다. 벗어 버리고 딴 거 입습니다. 그와 같이 애들 적에도 죽는 수가 있고, 젊어서도 죽는 수가 있고, 늙어서도 죽는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나는 가져갈 수 있을지언정 참나는 가져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나는 영원하니라.' 한 겁니다. 영원한 그 자체가 왜 똑같지 못합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 데서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욕심이 과하고 착이 많고 탐심이 많아서 이렇게 모두가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 한 식구가 모여서 사는 것도 우리가 한 철 놀러 나와서 인연에 따라서 만나서 한 철 살다가 헤어질 때는 다시금 다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집착하겠습니까? 나라는 조건 이 자체도 바로 헌신같이 버려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부처님 뜻에도 그렇고, 육신을 낳아 준 부모의 뜻도 그렇고 또는 아래로는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는 소임도 다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육신도 잘 섬겨야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질계와 정신계가 이렇게 서로 같이 돌아가야 되겠죠.

때로는 애들을 공부를 시킨다 하더라도 정신 쇠약이 되면 공부할 생각이 안 나고 의욕이 생기지를 않고 몸이 나른하고 졸립기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부모네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서,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로 회복제, 간장약이 피로 회복제입니다. 그거라도 먹여서 나른하고 아프고 졸린 걸 쫓아내고 정신 회복이 되게끔 이렇게 돋워 줘야만 모자라지가 않죠? 용기가 나고 의욕이 생기고 그런 거지, 여러분도 아파 보세요, 의욕이 생기나? 이거는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저녁 점심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밥을 먹이는 것도 약과 같습니다. 약 아닌 게 없습니다. 밥도 약이요, 과일도 약이요, 모든 게 약 아닌 게 어딨습니까? 약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약이고 밥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밥이지, 밥 따로 약 따로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죠, 먹는 것이. 그러나 그것도 무조건 아무거나 먹여서 되는 건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식들을 기르고 부모를 섬기려면 반 의사는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모든 것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돌려놓는다면, 아파서 돌려놓을 때는 바로 약사로 화해서 찰나에 약사가 됩니다. 내 주인공이. 일이 안돼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거기다 맡길 때는 관세음이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칠성이 되고 독성이 되고, 용신도 되고 지신도 되고, 모든 게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놓는 대로 이렇게 화해서 바뀌지기 때문에 천백억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합격 기도를 부친다고 하는데, 이 기도 부치는 것도 스님네들이 얼마를 가져오라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적든 많든 형편대로 지극하게 자기가 마음을 내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라야지. 가게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때에 조금도 의심 없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사듯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가 가져오란다 하면은 벌써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 접수는 하되 돈은 얼마 얼마 가져오라는 법이 없어질 겁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일거일동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가정으로부터 내 마음, 내 몸, 내 식구 이것이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법당 따로 있고 댁의 가정, 집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찰이든지 매일 와서 정진하고 정성들이고 그렇게 잘 한다면은, 그저 자주 와서 노상 살다시피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스님네들은 다 좋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스님네들도 생각해 볼 점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 그 가정이 내 가정이요, 그 사람들이 나요, 그 아픔이 나요,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어설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가정 섬기듯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모두가 남의 탓으로 돌리고 비판하고 온통 이렇게 돌아가니까 한마음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어떡하면 한 계단을 더 올라서나 하고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단이 많고 그러는 반면에 국민들만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잘못하면 애들이 힘이 든단 말입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안 그래도 부부가 항상 싸움질이나 하고 항상 엇갈리고 사네 못 사네 하고 야단들을 한다면 그거 듣는 자식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지겨워.' 하고 이탈을 하게 되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터지게 되죠. 그러니 터진 연에 뭐를 붙들려고 그러느냐 하면 말로 해서 몸을 붙들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또. 몸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바로 마음으로써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는 저절로 오게 되고 따뜻하게 되죠.

자기가 가는 곳마다 부처가 계신데,
여기서 정진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자기를 돌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고 해서 안 돌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종교가 어떠한 것인지, 이 불교다 하는 것이 종교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죠. 불(佛)이라는 건 일체 모든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바로 그 모든 일체 생명의 근본에서 서로가 교환하고 말하고 또는 통신이 되고 서로 이러는 것이, 안팎이 없이 통신되고 교류하고 돌아가는 거, 혼자 살지 않고 포괄적으로 모든 게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교(敎)라고요. 그러니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에 있습니까, 가톨릭교에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까? '불' 이라는, '교' 라는 그 두 글자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놓고 만날 믿고, 상대를 놓고 찾고, 상대를 놓고 원하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 뭔 짓들입니까?

"불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니까 어떤 선지식이 주먹을 불끈 내밀었다 이겁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불법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으니 어떤 선지식은 벌떡 뛰어 내려와서 그냥 멱살을 쥐고 발길로 차고 그냥 막 두들겨 팼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죽겠다는 놈은 누구냐?" 하고 물었답니다. 말만, 그냥 좋은 말만 잘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경을 아주 달큼하게 다 읽었다 하더라도 그 속 내용을, 그 속 내용 하나에서 수만 가지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못났든 잘났든 "너만이, 네가 걸음을 걷고 있다. 누가 대신 걸어 주지 않는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만이 자기를 걷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리로 가게 하고 저리로 가게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 그것을 둘 아니게 다잡아서 다스리면서 가야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가요?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촛불 심지가 비뚤어졌으면, 심지가 비뚤어졌으니까 불도 비뚤어지고 한편으로만 타 가지고 촛농이 줄줄줄줄 다 흘러내립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마음이 그렇게 비뚤어졌으면 다시 다스려야죠. 촛불이 너무 길고 심지 밥이 비뚤어졌으면 잘라 버리고 똑바로 세워 놓으면 촛농이 양면으로 흐르지도 않고 똑바로 밝게 잘 켜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그 초 다스리는 거와 초 심지 다스리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고삐를 쥐고서 똑바로 다스려라 하는 뜻은 소가 만약에 남의 집 파밭이나 배추 밭이나 이런 데로 막 들어가서 짓밟아 놓으면 안 되니까, 고삐를 쥐고서 '똑바로, 길로 똑바로 가거라.' 했던 거죠. 자기 고삐를 자기가 쥐고서 가는 거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으로도 그려 놓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 나라도 그렇고 어느 회사도 그렇고 어떠한 일을 하든, 여러분의 살림이 윤택해지고 잘해 나가려면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 나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에 어느 신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의 돈을 반이나 얻어 가지고 회사를 하는데 회사를 하니까 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사장이 됐으니깐 차도 타야 하고, 사장이 됐으니깐 '나' 라는 모가지가 뻣뻣하게 그냥 굳어졌단 말입니다. 그래 수그릴 줄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도 하게 되고, 외식을 하다 보니까 외식에 빠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사장에 그냥 매달려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홀딱 다 넘어가고 자기 들어 있는 집까지 다 날렸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2년 10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6.25 참전 태국군 위령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제 1회 태국군 한국전쟁참전기념 영산대재를 태국 람인트라 참전용사비에서 개최합니다.

세계의 중요무형 유산인 영산대재를 태국에서 개최하는 뜻 깊은 자리에 일반 참관불자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봉원사 02)392-3007~8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사기간 2015년 10월 15일 ~ 20일
영산대재 봉행 2015년 10월 16일
장 소 태국 방콕 람인트라 (참전용사촌)
문 의 천년고찰 봉원사 02)392-3007~8 (보존회장 선암스님)
주 최 (사)영산재보존회 / 봉원사

※ 영산대재 봉행 후 파타야 / 아유타야 성지순례 진행합니다.





